

국내 최대규모 프랜차이즈 창업 상담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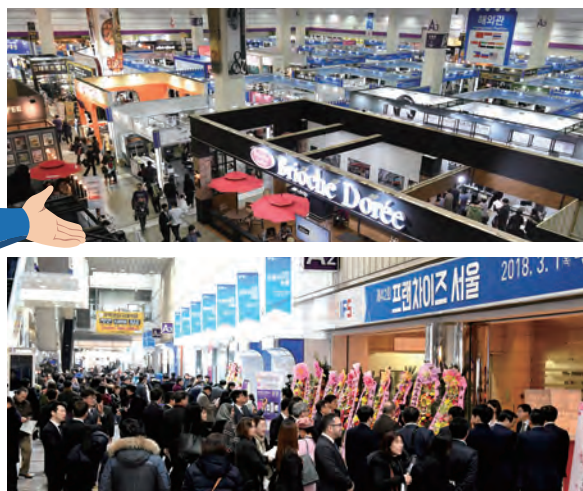
IFS 2019-2020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연간 일정

제46회 프랜차이즈 대구 2019년 8월 8일 - 8월 10일, 대구 엑스코

제47회 프랜차이즈 서울 2019년 10월 3일 - 10월 5일, 서울 코엑스

제48회 프랜차이즈 부산 2019년 10월 31일 - 11월 2일, 부산 벡스코

제49회 프랜차이즈 서울 2020년 3월 26일 - 3월 28일, 서울 코엑스



성공으로 가는 프랜차이즈 사업,
지금 전시 사무국과 상의하세요!

전화 02-6000-1564 이메일 ifs_info@naver.com
Website www.ifs-korea.co.kr

* 코엑스는 제 47회, 제 49회 프랜차이즈 서울만 주관합니다.

주최사 |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orea Franchise Association

프랜차이즈월드

2019 JUNE - Vol.41

Cover Story 미투 브랜드 난립 막는다. 당정, '1+1' 논의 중...

Korea Franchise Association

Franchise WORLD

2019 JUNE - Vol.41

Cover Story

미투 브랜드 난립 막는다
당정, '1+1' 논의 중...

“불량 가맹본부 피해 방지 위해 ‘1+1제’ 등
가맹본부 자격 요건 강화해야”

Special Report

갑작스러운 주류 리베이트 금지에 업계 비상!
...“신규창업 위축 등 부작용 우려”

“10년 이상 장기 가맹점 평가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계약 갱신 결정”

People & Company

(주)GF포유 박일 대표
리드엑시비전스코리아 손주범 대표
가현택스 최인용 대표세무사



KFA
Korea Franchise Association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호사

첫 젓가락의 설렘이 식사를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쿠우쿠우
쿠우쿠우
Sushi·Roll & Salad Bar

고객센터 / 가맹문의 **1577·4841**



쿠우쿠우
캐릭터 쿠웅이

9월 9일은 쿠우쿠우 DAY



(주)태종에프디

이젠 프랜차이즈도 **원팩(One Pack)**화!

미스타 셰프가 해결해 드립니다!

인건비 절감! 맛의 표준화! 시간절약!

- ★ HACCP인증 시설에서 생산되는 위생적인 제품 (식육추출가공품, 즉석조리식품)
- ★ 1인분 소포장(원팩)으로 관리 및 매장 운영 용이
- ★ 기업 맞춤형 OEM 생산 가능 / 자사 브랜드 "미스타셰프" 제품 보유
-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품질관리, R&D 전문인력 보유(산기협 제2010112859호)
- ★ 일 50,000개 이상 생산 가능한 인력 및 설비 구축 (총 3개 공장 운영)



생산 품목

- 갈비탕, 버섯들깨탕, 버섯뚝배기불고기, 부대찌개, 사골우거지해장국, 사골황태해장국
- 설렁탕, 수육국밥, 후수육국밥, 아욱다슬기해장국, 우보탕, 육개장, 추어탕, 해물누룽지탕, 해물알탕 외

문의전화

031-322-5611

www.taejongfd.com

제1공장 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177
제2공장 용인지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175
제3공장 양지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학촌로62
※ 구매 상담을 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HACCP 인증



ISO 9001:2008
품질경영 시스템



ISO 14001:2004
환경경영 시스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식품이력 추적관리



용인시 성실납세자



“ 칭찬받는 선택
실패없는 맛집
채선당 ”

채선당은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문화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으로 전국 매장에 더욱 신선한 샤브샤브와 건강한 식재료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임도 GOOD!



채선당의 검증된 맛! 월남쌈과 야채 리필바 무한제공으로 가성비 최고!



회식도 GOOD!



대게도락(道樂)에 이은 채선당 또 하나의 해산물 명품 브랜드



혼밥도 GOOD!



혼밥이라도 제대로! 한정식만큼 든든한 1인 가마솥밥 전문점

성공창업, 지금 문의하세요!

합의 1566-3800

영남 051-557-4096



‘낙곱새의 원조’ 창업시장에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 “용호洞낙지”는



1. 입점 지역 음식점 중 **매출1위**



2. **60년** 전통의 맛으로 승부



3. 주방 조리시스템의 **단순화**



4. 오랜 연구의 결실 **비법 양념**

각종 매스컴에서 극찬한 “용호洞낙지”



'용호洞낙지'는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부산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맛 노하우 그대로를 전수하기 때문에 별다른 기술 없이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상권창업을 고려하는 창업자는 '용호洞낙지'의 운영시스템과 메뉴에 대한 맛이 검증되어 있어 신규창업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가맹문의
02-863-4578



사월에 보리밥과 **쭈꾸미**



사월에 쭈꾸미 한상

고수의 한식을 즐기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매콤한 쭈꾸미볶음에 꿀피자와 물냉면까지 환상궁합으로 즐길 생각.

오직 '사월'에서만 맛볼 수 있는 3색 요리 한식.

20년 한식고수의 특별한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 3색 요리 초가성비 메뉴경쟁력 ■ 풀잎채 20년 한식 고수의 맛 ■ 전국 15개 대형몰서 검증된 창업성공아이템
- 고수익 명콤비, 보리밥과 쭈꾸미의 만남 ■ 자체 물류센터 안정된 식자재 공급 ■ 본사 신메뉴 개발 및 교육 지원



성공
문의

070-4640-0973

www.sawole.com

글로벌 NO.1 부동산그룹, 리맥스 (RE/MAX)

리맥스(RE/MAX)는 전 세계 11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세계 최대 부동산 네트워크이다. 미국 덴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8,200여 개의 오피스에서 12만5천여 명의 에이전트가 활동 중이다.



당신을 위한 완벽한 부동산 서비스 RE/MAX

고도로 전문화된 에이전트들의 원 스톱 서비스

전국 각지에 포진한 가맹점들의 긴밀한 협력체계

온-오프 라인 부동산 서비스의 유기적 통합

중개뢰~계약~사후 서비스까지 토탈 서비스

전세계 12만명의 에이전트를 통한 안전한 해외부동산 거래

RE/MAX Korea
T. 02.558.0220
www.remax.co.kr

가맹점 : 서울 강남 RE/MAX Widepartners 02.539.7500 | 서울 강남 RE/MAX GoldAsset 02.568.1957 | 서울 서초 RE/MAX Bright 02.772.9119 | 서울 마포 RE/MAX TOP 02.6933.4231
서울 송파 RE/MAX Firstpartners 02.421.1777 | 서울 강남 RE/MAX NEXT 1566.3864 | 서울 용산 RE/MAX UN 02.792.2558 | 서울 마곡 RE/MAX Leaders 02.6743.6000
경기 안산 RE/MAX Bestpartners 031.401.3301 | 경기 동탄 RE/MAX V&A 1600.7486 | 경기 평택 RE/MAX 임프리스 010.9981.0623 | 강원 원주 RE/MAX Winners 033.734.9889
충남 세종 RE/MAX 황지 044.998.4070 | 부산 동래 RE/MAX VIP 051.758.6500 | 제주 RE/MAX Live 1544.0385 | 서울 논현 RE/MAX Sein 02.544.0069
서울 성동 RE/MAX Honors Partners 02.3409.9171 | 울산 RE/MAX 청명 010.3559.2558 | 경기 용인 RE/MAX Golden J Partners 031.285.8933
오픈예정 가맹점 : 서울 서초 RE/MAX Jungwon 010.8000.8080 | 대구 중구 RE/MAX Able 010.8599.8528 | 부산 진구 RE/MAX J&U 010.4608.2689



문구·사무용품 대표기업

오피스디포

“ 성공적인 가맹점 개설을 약속 드립니다! ”



상담문의 **02)2054 -1012~3**

오피스디포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구·사무용품 기업**입니다.

매출
1,208억
(2018년 결산)



재무안정성
1위
(문구·사무용품업계)



브랜드 인지도
1위
(행키닷컴)



직영점
29개
(업계최다)



가맹점
115개
(전국기준)



<2019년 4월 기준>

업계 최초 최대 **1.5억원** 가맹점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오피스디포 본사가 제공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프로그램

임차보증금 지원 프로그램이란?

소매시장 진출 시 우수한 상권에서

중대형 매장을 임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 오피스디포 본사에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오피스디포와 신한은행이 함께하는 신한은행 프랜차이즈론

프랜차이즈론이란?

신한은행과 협약이 체결된 우량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하는
가맹점주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서

✓ 신규 창업 희망자에게는 창업 자금을,

✓ 기존 매장에는 운영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

GEOSUNG CHICKEN
거성치킨

거성!
치킨을 만드라



거성치킨 대한민국 최저가 창업지원 이벤트!(홀+배달)

- ☞ 인테리어 평당 90만원 (평당150만원→90만원)
- ☞ 가맹비 500만원 → 200만원
- ☞ 거래보증금 200만원 → 100만원
- ☞ 월로열티 평생면제!
- ☞ 교육비 200만원 → 100만원
- ☞ 무이자대출 3,000만원

▶ 총 창업비용: 3,450만원

거성치킨의 차별화된 경쟁력!

- ☞ 상권, 입지, 고객층에 따라 1:1 맞춤식 창업 프로그램 운영
- ☞ 물류공급가격 연동제 시스템 운영
- ☞ 동종업계 최저수준의 물류공급가격
- ☞ 물류센터 1일 배송시스템
- ☞ 20년 프랜차이즈 경험과 노하우
- ☞ 하자보수 이행증권 의무발행

거성치킨소자본배달전문매장 창업지원이벤트

본사창업비:535만원

서울 ■ 사당점 학동점 강남점 서울숲푸르지오점 답십리점 혜화점 미아점 고대중앙점 망원점 신림점 영등포점 오류점 당산점 ■ 경기 ■ 김포문양점
소사본동점 부천삼정점 부천약대점 양평역점 금정역점 용인죽전점 안양일번가점 파주외동점 범박점 ■ 인천 ■ 영종하늘도시점 청라점 당하점 간석점 동인천점
기타 ■ 부산명지점 부산좌동점 부산대연점 제주노형점 제주아라점 제주연동점 대포항점 대구평화시장점 거제옥포점

이수푸드빌

가맹점문의 02-586-2994

김밥은
김가네



김가네

가맹문의 1588-7187



시원함이 활짝!
EXTRA COLD

경고: 지니친음주는 저출생, 기약력 손상이나 차폐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가맹본부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이론과 실무



제 26 기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과정 모집

모집요강

교육기간 : 2019년 8월 29일 ~ 12월 19일(15주)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4시간)

교육대상 : 가맹본부 대표 및 임원, 경영실무자, 가맹본부 창업 준비자,
가맹사업과 시너지를 기대하는 전문직업인

교육장소 :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7호선 논현역 4번출구)

모듈별 주요과목

Module I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프랜차이즈 개념과 성공전략 /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의 현황과 환경 /
가맹사업법의 이해와 실무 /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유형과 판례 및 해결방법 /
이익중심의 가맹본부 경영전략 / 해외 프랜차이즈시장 트렌드 /
국내 프랜차이즈기업 견학

Module II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과 운영전략

프랜차이즈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구축방법 /
상표등록과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방법 / 프랜차이즈 기업의 비컨셉 도출과
브랜딩 전략 / 상품(원재료·부재료)의 3S 및 가격전략 /
서비스 프로세스화와 서비스품질 향상 전략 / 일본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의
주방시스템 성공사례 / Local Store Marketing /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사례

Module III 가맹본부 경영전략

프랜차이즈 기업 CEO 특강 / 가맹금에 대한 이해와 수익구조 설계 /
외부 영업채널을 활용한 가맹점 모집전략 / 가맹본부의 상권 및 입지분석
프로그램 구축방법 / 가맹희망자 모집 및 계약성사율 증대방법 /
가맹희망자 모집증대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 /
네이버 제대로 활용하기 / 해외 프랜차이즈 연수

Module IV 슈퍼바이징과 가맹점과의 생산적 관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생산적 관계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축방법 /
슈퍼바이징시스템 / 가맹점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법 /
가맹점의 노무관리 방법과 노무분쟁유형 및 해결방법 / 프랜차이즈 경영과 인문학

교육문의

☎ 대표번호 : 02)2233-4777

🌐 홈페이지 : www.ifis.co.kr

과정안내

사례중심의 **이론교육 40%**
실습중심의 **실무교육 60%**



입학식



국내 워크샵



해외 워크샵



동문 송년회



수료식

혜택 및 특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수료증 수여
최고전문가과정 총 동문회 「한국프랜차이즈전문가포럼」 가입
700여명의 동문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각종행사 참여 (동문 송년회·골프회·산악회 등)
프랜차이즈 산업연구원 연구자료 및 컨설팅 자료 열람
지도교수의 상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 노무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복잡한 노무관리는 C&B에게,
점주님은 사업만 열중하세요~

최저임금 인상, 4대 보험료 부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 등
프랜차이즈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C&B의 특화된 프랜차이즈 노무관리 서비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노무관리 및 가맹점주의 노무관리 업무를
위탁 관리합니다.

프랜차이즈 노무관리의
중요성 증가!!!

12,000여 기업이 이미 C&B의
노무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

근태·급여관리

- ▶ 가맹점주님이 노무관리를 할 여력이 없다.
- ▶ 공단으로부터 4대 보험 추징이 증가하고 있다.
- ▶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 ▶ 근로감독강화와 계약서 및 서류관리가 안된다.

차별화된 C&B 노무관리 서비스

전자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자료 보관

- 전자근로계약서를 무료로 제공하며, 경영주님은 스마트폰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경영주님이 직접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법인 씨앤비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전자근로계약서는 노무법인 C&B에서 3년간 보관을 합니다.

근태관리 App과 급여자동 계산

- 스마트폰 근태관리 어플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영주님은 직원의 근무시간을 입력만 하면 급여가 자동 계산됩니다.
- 경영주님이 일일이 급여를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근태관리 App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금대장 작성

- 4대 보험 가입 시 지급액과 공제금액 등을 관리합니다.
- 임금대장은 3년간 보관됩니다.
- 급여관리 후 세무사무소에 전송합니다.

4대 보험 업무

- 4대 보험 가입자 및 미 가입자를 별도 분류하여 관리를 합니다.
- 4대 보험 미 가입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으로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추징 시 적용제외 기준에 따른 임금대장 관리 등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과 입사 및 퇴사에 따른 취득과 상실 신고를 제때에 함으로써 보험료 과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명부 등 각종 비치서류

- 전자근로계약서 및 근태관리App을 이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한 후 근로자명부를 작성합니다.
- 근로자명부는 3년간 보관됩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및 최저임금게시 등

- 최저임금 게시와 성희롱예방교육일지 등을 관리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업무

- 정규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구분 관리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업무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도 월 60,000원에서 150,000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주 소정 근로시간	월 지급액	
	현행	개정안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9만원	12만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6만원	9만원
10시간 미만	3만원	6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례 ○○○점

근무조	1일 근무시간	1주 근무일	시급	월급여	지원금	
					국민/건강 가입	국민/건강 미가입
평일	7	5	7,530	1,146,443	120,000	90,000
야간	10	5	7,530	1,637,775	130,000	90,000
주말오전	7	2	7,530	458,577		90,000
주말오후	7	2	7,530	458,577		90,000
주말야간	7	2	7,530	458,577		90,000
지원금 합계						450,000

대한민국 유통사 현직 임원이 연사로 참여하는 비즈니스혁명 최고경영자과정

제10기 채널마케팅최고경영자과정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회사에서도 교육을 많이 받지만 이번 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고, 어떻게 해야할지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을 잘 모르는 공대 출신인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직원들에게 이야기 해야겠다는 생각에 참여했습니다. 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 좋은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유통 채널이 너무 중요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대상 : - 제조/유통업자 경영자 및 임원
- 마케팅/영업 담당자
- 유통 채널 트렌드를 알고 싶은 분
-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넓히고자 하는 분

교육기간 : 2019년 9월 24일 ~ 2019년 12월 20일
(매주 화 / 18:00~21:30)

교육장소 : 임페리얼 팰리스 서울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합격통보

등록금 : 일반사 : 370만원 (VAT별도)
회원사 : 350만원 (VAT별도)

문의상담 : 한국마케팅협회 교육컨설팅본부
TEL : 02-2057-5678

10기 주요 교수진

롯데홈쇼핑 마케팅 책임자	이마트 마케팅 책임자	BGF리테일 마케팅 책임자	홈플러스 마케팅 책임자
CJ프레시웨이 마케팅 책임자	GS홈쇼핑 마케팅 책임자	SYS리테일 마케팅 책임자	티켓몬스터 마케팅 책임자

10기 주요 커리큘럼

- # 유통채널 맞춤 상품기획
- # 소비자를 움직이는 브랜드
- # 유통 트렌드와 2020 대응 시사점
- # 오프라인 매장의 집객 무기
- # 변하는 소비자와 마케팅
- # 미디어 커머스 전략
- # 고객경험 마케팅 혁신
- # 스트리밍 쇼퍼와 인플루언서 마케팅
- # 고객 커뮤니케이션과 판매 채널

한국마케팅협회
Korea Marketing Association

튼튼한 우리매장 지킴이 B&캡스 결합상품 출시

인터넷과 ADT캡스 보안상품을
함께 가입하시고 출시 특가에
결합 할인까지 누리보세요!



혜택 1

인터넷 요금
3개월 할인!



혜택 2

ADT캡스 출동보안
출시특가 + 3개월 할인!



월 최대 할인한도 11만원
※ VAT포함

혜택 3

선택상품 구성에 따라
월 최대 8,800원 추가할인!



전화



ADT캡스



클라우드캠



IPTV



카드결제기



SK매직 렌탈

※ 인터넷요금 기준 / VAT포함

혜택 4

프리미엄 멤버십 혜택!
매장관리서비스 1년 무료!

(사장님 안심경영팩)



무료 알바구인
(유명 알바구인 사이트)



매장위치 홍보
(30여개 채널)

메뉴안내에 주문, 결제까지 한 번에!

손님은 밀리고, 경쟁 매장은 많고...
좀더 고객에게 집중할 방법이 없을까?

이제, 키오스크에 맡겨보세요!



먹고가기 >

포장하기 >

무인결제 키오스크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품질과 서비스는 기본, 경제적 렌탈비로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01

빠른 기능
고객 만족도 향상

터치 몇 번으로 결제까지
주문 대기시간 감소

02

경제적 가치
월 8만원 부터

경제적인 월 렌탈료로
부담없이 운영

03

인건비 절감
매출이 쑥쑥

효율적인 운영으로
매장비용 절감

04

다양한 제품
업종별 맞춤 설계

업종 구분 없이
어디든 사용 가능

05

365일 서비스
24시간 제공

24시간 무인시스템
원격 AS 지원

06

효율성
최고의 가성비

멀티미디어 광고 효과
다국어로 외국고객 응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품격 자영업자 편파방송

창업직설

창업 컨설턴트, 프랜차이즈 본사는 말 못하는 불편한 진실
발로 뛰는 겁없는 기자들의 자영업 수다쇼!

창업직설



노승욱 매경이코노미 기자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기자
정성휘 근대골목단팥빵 대표

3MC 만담 케미 '뽀뽀'

프랜차이즈 대표, 다점포 점주
어벤저스급 게스트 총출동!

화제의 방송
자영업 팟캐스트 1위!

방송 1년 만에
경제 팟캐스트 TOP 10!

-자영업 전문 기자가 전하는 생생한 CEO 열전 '프랜차이즈 대표, 그들은 누구인가'
-바쁜 자영업자 대신 책 읽어드려요 '자영업자를 위한 책읽기'



All New
모든 것이 새로운 곳
새로운 장묘문화의 시작. 에덴낙원



“하나님께서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하셨습니다.
이곳은 하늘 나라를 지향하면서 오늘의 생을
가장 소망적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리 이곳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곽신희 목사 에덴낙원 명예이사장, 소망교회 원로목사

재단법인 에덴낙원 운영이사

곽요셉 목사 에덴낙원 이사장	배성식 목사 이룸교회 담임목사
고명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서정오 목사 동승교회 담임목사
권수영 목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원장	신조우 목사 복대교회 담임목사
김대덕 목사 군신교연합회 총무	조건희 목사 예능교회 담임목사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담임목사	조정민 목사 베이직교회 담임목사
김영신 목사 송도예수소망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목사 주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중 목사 안산동산교회 원로목사	한기채 목사 중앙성결교회 담임목사
김학중 목사 꿈의교회 담임목사	

에덴낙원 가족 멤버십 혜택

- 1. 화제** 천국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예배당, 고인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장례 예배, 추모영상 제작
- 2. 편의** 5가지 타입의 다양한 객실, 객실 50% 할인 (쿠폰 제공)
- 3. 이커** 레스토랑 세상의 모든 아침, 카페 알렉스 더 커피, 홍차 전문점 티 하우스 에덴 10% 할인
- 4. 리모티** 오직 회원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라이브러리 가족 모임을 위한 다양한 크기의 미팅룸
- 5. 휴거** 연회장 에덴볼룸, 그레이스홀, 야외 결혼식장, 3500평의 테마가든, 글라스 하우스, 다양한 세미나실

www.edenparadise.co.kr

인터넷에 에덴낙원 을 검색해보세요.

☎ 031-645-9191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449-82



에덴낙원메모리얼리조트
EDEN PARADISE MEMORIAL RESORT



2019 JUNE Vol.41

C O N T E N T S

THE LETTER FROM PRESIDENT

021 박기영 협회장 인사말

COVER STORY

024 미투 브랜드 난립 막는다, 당장 '1+1' 논의 중...

028 "불량 가맹본부 피해 방지 위해 '1+1제' 등
가맹본부 자격 요건 강화해야"

SPECIAL REPORT

030 갑작스러운 주류 리베이트 금지에 업계 비상!
...“신규창업 위축 등 부작용 우려”

032 “10년 이상 장기 가맹점 평가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계약 갱신 결정”

036 “상생 협력 확산으로 동반 성장 도모”...
정부-프랜차이즈업계 민·관 협력 강화

038 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040 “대구·경북 지역 경제 새로운 성장동력”...
8.8~10 '제46회 프랜차이즈 대구'

042 롯데마트 통큰 치킨,
영세가맹점주 폐업으로 내모는 길

044 “폭언 피해 심리 상담까지”...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의무 부과

038



046

PEOPLE & COMPANY

046 (주)GF포유 박일 대표
- 빈속은 채워주고 뭉친 속은 풀어준다네

050 리드엑시비전스코리아 손주범 대표
-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국가 산업 기여도 매우
높아... 부정적 관점 보다 긍정적 관심 갖고 바
라봐야”

054 가현텍스 최인용 대표세무사
- 세무·회계부문, 프랜차이즈 지평 열고 'GTAX
시스템' 개발로 건강한 기업 도와

BRAND HIGHLIGHT

058 한국짐보리, 김가네, 크린토피아,
해마로푸드서비스, 원앤원, 본아이에프, 파리바게뜨,
죽이자기, 장수돌침대, (주)빅토리어스, 피자마루,
아모레퍼시픽, 네네치킨, 암샘김밥,
해피브릿지협동조합, 바빈스커피, 티바두마리치킨,
(주)디딤, KGC인삼공사, 남다른감자탕,
교촌에프앤비, 양키캔들, 조스푸드, 지호한방삼계탕,
셀렉토커피, 피자알볼로, (주)엔켓, (주)이비가푸드,
푸라닭치킨, (주)장스푸드, 주씨, 오피스디포

064



놀이만큼 신나는
애착육아가 또 있을까?

아이는 엄마와의 애착을 통해
자아를 키우고, 세상을 배웁니다.
혼자 놀게 하지 마세요, 짐보리 애착육아를 시작하세요.
엄마와 눈을 맞추고, 체온은 느끼고, 함께 바라보는
짐보리 놀이 프로그램이 엄마가 꿈꾸는 행복한 아이로 키웁니다.

짐보리에서 함께 놀아주세요. 애착육아를 시작하세요.

GYMBOREE



전 세계 45개국 300만여 명 회원이 선택한 글로벌 프리미엄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짐보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비즈니스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 02-6714-2220

“가맹본부 난립 막을 제도 도입 고민해야 할 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박 기 영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40여년의 짧은 역사와 숏한 위기 속에서도 GDP의 7%에 달하는 120조원 규모의 매출과 120만명의 종사자를 갖춘 국가경제 기반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일궈낸 기적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양적인 성장은 우리 산업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왔던 낮은 진입장벽은, 이제 가맹본부 수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많은 6천개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각종 부작용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고의 노력을 통해 태어난 아이템과 콘셉트를 쉽게 모방하여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미투 브랜드들과, 가맹점 개설만을 목표로 하여 유지 및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부 ‘뺏다방식’ 가맹본부들이 성실하고 상생하는 우리 산업인들의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의 가장 근간은 신뢰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상호간의 신뢰와, 최고의 품질을 어디서나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뢰 구축에 힘을 쓰는 동시에 합리적인 제도가 뒷받침될 때 우리 산업은 더욱 안정되고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신뢰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는 1%의 가맹본부들이 99%의 선량한 가맹본부들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은 필수적입니다. 2000년대 초반 극심한 혼란기에 가맹사업법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산업이 안정화되고 신뢰를 구축했던 점을 떠올려 본다면, 이제는 불량 가맹본부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마침 정부와 국회의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업계가 가맹사업 자격요건의 강화를 통한 업계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1+1제’ 또는 ‘2+1제’와 같은 여러 대안들을 논의하고 좋은 정책이 발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협회도 이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 및 국회와 연계하여 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난 2017년 협회가 발표한 자정실천안을 계기로 상생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새롭게 태어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정부와 국회에서도 프랜차이즈의 진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이 이처럼 어렵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한 번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산업인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JUNE Vol.41

C O N T E N T S

COLUMN

- 066 노무(이금구 노무사) _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란?
- 068 마케팅(장재남 원장) _ 2019년 예비창업자의 창업 환경과 가맹점 창업에 대한 의식조사 필수조건
- 070 트렌드(이경희 소장) _ 프랜차이즈는 기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 072 세무(노정민 세무사) _ 상속세 절세팁 7가지

GUIDE POST

- 074 노승욱 특임기자 _ 프랜차이즈 업계 전문경영인 영입 열풍
- 076 유상목 교수 _ 베트남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 기업들

HOT ISSUE

- 078 “잠재력 높은 부산 프랜차이즈 활성화 위해 市 차원 지원 필요” 외

082



070

업계행사

- 082 2019년도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춘계학술세미나

교육안내

- 084 “가맹본부 실무자 교육,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해결해 드립니다”

ASSOCIATION NEWS

- 086 협회소식
- 100 지회소식
- 104 신규 회원 / 교육 일정
- 106 협회 및 협회장 동정

076





프랜차이즈월드 제 41호 / 2019년 6월호

발행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기획·제작 (주)KFN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월한빌딩
대표메일 kfn1991@naver.com
광고문의 02-556-7889
보도자료 Webhard (ID:kfn1991, PW:1991)
취재·구독문의 02-556-7889 (구독료 10,000원/권)
인쇄 (주)근아인쇄 (02-2279-1430)
판매대행 (주)성운도서 (031-915-6900)
등록번호 서초, 라11702호



Korea Franchise Association 프랜차이즈월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집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UBLISHER

회장 박기영 | Park, Ki Young
발행·편집인 이진창 | Lee, Jin Chang
협회/대외협력실장 박호진 | Park, Ho Jin

EDITORIAL DEPT

국장 신일영 | Shin, IL Young
부장 이 호 | Lee, Ho
차장 김지영 | Kim, Ji Yeong
기자 김은영 | Kim, Eun Young
특임 기자 정종인 | Cheong, Chong In
노승욱 | No, Seung Wook
박서진 | Park, Seo Jin

DESIGN

실장 이우영 | Lee, Woo Young

PHOTO

사진기자 이명철 | Lee, Myung Cheol
김동하 | Kim, Dong Ha

CORRESPONDENT

강원 기자 손준기 | Son, Jun Ki
광주·전남 기자 박내연 | Park, Nae Yeon
대구·경북 기자 권오하 | Kwon, Oha
대전·충남 기자 박경원 | Park, Kyung Won
부산·울산·경남 기자 남구만 | Nam, Gu Man
전북 기자 고재경 | Ko, Jae Kyung
충북 기자 박성희 | Park, Sung Hee

CONTRIBUTORS

FC 산업연구원장 장재남 | Jang, Je Nam
변호사 이상호 | Lee, Sang Ho
세무사 노정민 | No, Jeong Min
노무사 이금구 | Lee, Keum Goo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 이경희 | Lee, Gyeong Hee

CONSULTATIVE COMMITTEE

편집주간 김영인 | Kim, Young In
수석편집위원 안현진 | Ahn, Hyun Jin
편집위원 신향숙 | Shin Hyang Sook
김용순 | Kim, Yong Soon
이근정 | Lee, Keun Jeong
이상규 | Lee, Sang Kyu

ENSoo



아연이온수 물을 바꾸면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
물을 바꿔야 건강해집니다.
DNA와 세포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미네랄 아연을 이온화시켜
마시는 물, 씻는 물로 공급해주는 장치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아연이온수는

- 피부 면역력과 재생을 도와줍니다.
- 우리 아이의 근육과 골격
형성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 남녀 생식 기능 향상과
면역 체계를 개선시켜 줍니다.

건강한 물 **ENSoo**,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이름입니다.

미투 브랜드 난립 막는다 당정, ‘1+1’ 논의 중…

매장 운영경험 강조…

직영점 1곳 1년 이상 운영경험 있어야

단기간에 인기브랜드로 떠오른 소위 잘나가는 프랜차이즈를 모방하는 ‘미투(Me too) 브랜드’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고, 프랜차이즈업계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취지의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미투브랜드 난립을 막기 위해 1년 동안 1개 직영점을 운영하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1+1’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안한 ‘2+1’의 대안이다. 또한 지난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를 목적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WRITE 신일영



한 브랜드가 짧은 기간에 인기를 끌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너도 나도 이를 모방한 유사 브랜드를 만들어 가맹점을 모집하는 행태는 업계에서 종종 있는 일이다. 특히 식음료나 외식업종에서 두드러지는데, 문제는 빠른 속도로 올라갔던 인기만큼이나 추락하는 속도도 빨랐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 피해를 해당 가맹점주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데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임대료와 원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부실가맹본부로부터 창업자들을 보호해야할 명분이 더 많아진 셈이다.

2016년 대왕카스테라, 빠른 상승·빠른 추락

낮은 진입장벽… 피해는 가맹점주들이 떠안아

업계에서 대표적인 미투 브랜드의 피해사례로 꼽히는 것이 2016년 ‘대왕카스테라’다. 대만여행객의 입소문을 타고 국내에 상륙한 대왕카스테라는 압도적인 크기와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모으며, 당시 6여개 월의 짧은 기간 동안 가맹점을 250곳으로 늘렸고, 이를 모방한 유사 브랜드도 30개가 넘게 생겨났다. 하지만 그 인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대왕카스테라에 다량의 식용유와 화학첨가제 등 부적절한 재료가 사용됐다”고 보도한 뒤, 소비자 반응이 급속도로 냉랭해진 것. 동시에 250여 곳에 달하는 대왕카스테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은 급전직화했다. 결국 비슷한 브랜드를 통해 막 창업을 했던 가맹점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진입장벽이 너무 낮았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지적했다. 짧은 기간 폭발적 인기를 등에 업고 시작할 때부터 빠른 몰락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하루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던 매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카스테라 전문점이 순식간에 거품처럼 사라지며 충격을 줬다.

최근에는 대만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홍루이젠'이 가맹사업을 중단한 지 7개월 만에 가맹점 모집을 재개했다. 홍루이젠은 지난해 3월 국내에 들어와 단기간 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국에 250여 곳의 매장을 오픈했다. 홍루이젠이 이번에 공개한 오픈 예정 점포는 284개에 이른다. 홍루이젠의 인기에 힘입어 홍베이팡, 타이지엔, 풍성호, 티앙웨이 등의 대만 샌드위치 프랜차이즈도 사업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대만 샌드위치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제2의 대만 카스테라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보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단시간 내 빠른 성장과정이 대만 카스테라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홍루이젠 측도 이를 의식한 듯 최근 가맹사업을 재개하며 “본사의 이익만을 위한 무분별한 가맹점 오픈 및 확장은 지양하겠다. 이보다는 기존 가맹점들의 운영을 우선 중시하는 경영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 대왕카스테라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직접적인 매장 운영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터득하고,

또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점에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매장 운영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제45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 미투브랜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하고있다.

“제도개선 필요” 목소리 점점 높아져...

미국·중국 등 외국에서도 ‘가맹점 2 1인증제’ 시행

미투 브랜드의 실패로 인한 피해는 결국 가맹점주가 떠안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예비 창업자의 심리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와 이에 현혹당하는 창업자들이 미투브랜드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예비 가맹점주들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아도 신고만 하면 되는 현행 제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2017년 12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자격 없는 가맹본부의 특정 외식상품의 인기에 편승한 미투(Me-too) 사업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본질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제공 없이 영세가맹사업자에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맹본부가 직영점 2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2+1’을 제안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 등 17명의 의원도 2018년 11월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가맹사업회망자가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미국·중국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맹점 2 1인증제’(직영점 2개 점포를 1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가맹사업자 모집자격 부여)를 제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공정위는 ‘2+1’의 대안으로 1년 동안 1개 직영점을 운영하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1+1’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투 브랜드에 따른 피해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찾고, 그에 맞는 규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한 있는 것 같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도 지난 3월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프랜차이즈서울’ 전시회장을 찾아 ‘미투브랜드’에 관한 부분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프랜차이즈협회 등에서 2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브랜드만 가맹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2+1)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과거에 공정위는 이제안을 경쟁 저하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영세브랜드들의 난립은 득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직접적인 매장 운영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터득하고, 또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점에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매장 운영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 “보호 장치 강화”vs“시장 자율성 침해”

업계, “경험을 쌓은 후 사업시작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미투 브랜드’ 난립을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들은 가맹점 사업자 보호 장치 강화를 주장하는 여당과 시장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의견대립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1+1’개정안이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생태계는 분명 이전보다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고 이를 반기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 직영점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충분한 경험도 쌓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예측한 뒤, 가맹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율촌 김건호 변호사는 지난 6월 4일 열린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영업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가맹점모집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해철의원도 미투브랜드 난립방지를 위한 법안을 5월 23일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보공개서의 등록 의무 및 가맹금 예치 규정을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자는 것이 대안 제3조제2항). 매장 운영경험을 강조하는 ‘1+1’과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민생법안을 두고 언제까지 대립만 할지, 향후 정치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KFI**



“불량 가맹본부 피해 방지 위해 ‘1+1제’ 등 가맹본부 자격 요건 강화해야”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직영점 운영 경험 의무화 도입 필요”

WRITE 김동하

최근 성공한 창업 아이템을 손쉽게 베끼는 미투(Me Too) 브랜드들이 유행따라 우후죽순 난립했다가 사라지는 등 늘어나는 불량 가맹본부들로 인한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가맹사업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상호 영산대 교수(호텔관광학부 외식경영전공)는 지난 6월 8일 세종대 공개토관 109호에서 개최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최근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맹사업 자격 요건 강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가맹본부 수는 미국의 3천여개, 일본의 1300여개에 비해 월등히 많은 4,882개이며, 그 중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고 사업기간이 짧은 외식업 가맹본부가 75%에 육박한다”면서 “또 안정적 사업 운영의 토대인 직영점이 외식업에서는 0.05%인 6천여개에 불과해 가맹본부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영점은 소위 ‘모델 점포’로서 수익성을 검증하거나 표준 상권을 설정해 점검할 수 있으며, 시스템 표준화 구축 등 가맹본부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신생 가맹본부가 최소한도의 역량을 갖추고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영점 또는 그에 준하는 운영 경험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영국(1개 이상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프랑스(7년 이상 경력, 3개 이상 매장 2년 이상), 호주(3년 이상 경력, 1개 이상 테스트 매장), 미국(허가제 운영 주(州) 존재, 현지 실사로 허가)등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2+2+1제도>(직영점 2개 이상, 2개 이상 지역, 1년 이상) 또는 <1+1제도>(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를 자격요건으로 도입해야 한다”



축사를 하고 있는 협회 이규석 수석부회장

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지 실사도 병행하면 무분별한 가맹본부 설립을 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이희열 세종사이버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창주 (주)에쓰프레시 대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배선경 법률사무소 여름 변호사 등 업계·학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현재 업계가 처한 상황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규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 임영태 사무총장 등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김경원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안성만 한서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관계자들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KFN**



전문가 토론 시간에 임영태 사무총장이 좌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패널은 (왼쪽부터) 한상호 영산대 교수, 이희열 세종사이버대교수, 이창주 (주)에쓰프레시 대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배선경 법률사무소 여름 변호사.

(앞줄 왼쪽 5번째부터) 이규석 협회 수석부회장,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임영태 협회 사무총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창주 (주)에쓰프레시 대표, 배선경 법률사무소 여름 변호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주류 리베이트 금지에 업계 비상! ...“신규창업 위축 등 부작용 우려”

7.1부터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 시행...

“타 업종 비해 준비기간 너무 짧아” 한 목소리

국세청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오던 주류회사와 점포간의 주류 리베이트를 갑자기 금지하기로 하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지난 5월 31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6월20일까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WRITE 신일영

개정안은 우선 주류 리베이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현행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고시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리베이트’라는 문구 대신,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에누리·할인·외상 매출금 경감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 및 용역 제공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수입업자·도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과 주류 소매업자의 리베이트 수수만 금지하던 것을 모든 주류 면허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정상적 영업활동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일부 금품 지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외식업 신규 창업 위축 등 부작용 우려

연착륙 위해 유예기간도 충분히 줘야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예고한 시행일자

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면허가격의 폭등과 외식업 신규 창업 위축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또한 6월 13일과 18일 두 차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사항을 듣는 한편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주류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주류 가격을 인하,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정책 목표가 온전히 달성되기 위해서는 현재 고시된 개정안만으로는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소규모 창업자금의 대폭적인 확대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류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간의 이른바 ‘주류 대여금’이 완전히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주류 대여금’은 그동안 자금이 부족한 영세 창업자들에게는 고민을 풀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주점 뿐 아니라 치킨, 고기 등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거의 모든 외식 업종에서 폭넓게 이뤄져 왔던 오랜 관행이다. “따라서 외식분야의 신규 창업이 크게 위축되는 동시에 기존 자영업자들의 퇴출이 막혀버리는 등 연쇄 반응을 일으켜, 자칫 외식 시장의 시스템 붕괴까지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협회의 우려다.

이와 함께 정부 주류정책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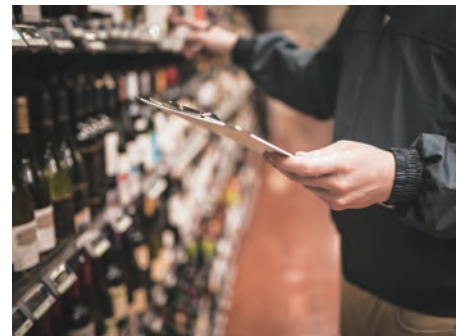
협회는 “리베이트는 주류 리베이트와 주류대여금 등은 특수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오랜 관행으로, 주류업계뿐 아니라 병·의원, 제약회사 등 의료계, 건설업계 등 경제 전반에 깊게 깔린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면서, “과거 정부는 의료·제약업계의 리베이



6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 긴급 간담회가 개최됐다.

트를 금지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바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이 불과 한 달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뿌리 깊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시도는 자칫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편법과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시행으로 인한 업계의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FN**



〈주요 개정 내용〉

제3조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에누리·할인·외상매출금 경감, 병마개·상표·RFID태그 등 회수 대가, 주류거래 약정·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판매대금이나 부채 등과 관련되지 않은 금품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의 명확화

현행 고시의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고시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 해소

현행	개정(안)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 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금지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에누리·할인·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 및 용역 제공 금지

쌍벌제 도입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개정하여 제도의 효율성 제고

현행	개정(안)
(제조·수입업자·주류도매업자)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금지 (주류 소매업자)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주류 면허자)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상생 협력 확산으로 동반 성장 도모”... 정부-프랜차이즈업계 민·관 협력 강화

산자부 · 공정위 · 중기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및 업계와 상생협력 합동 워크숍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 · 회장 박기영)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업계 스스로의 상생 문화 확산과 가맹본부 간의 상생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해 나간다.

WRITE 신일영

협회는 지난 5월 9일 서울 역삼동 역삼아르누보호텔에서 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프랜차이즈 관련 3개 부처가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통해 상생과 윤리 경영 등 건전한 가맹사업 문화의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워크숍은 프랜차이즈업계의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간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민간의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산업부는 대한상의 및 협회와 실시한 ‘2018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성장세 둔화 ▲업종 편중 심화 ▲시장 과포화 ▲영세 가맹본부 · 가맹점 증가 ▲선진 모델 도입 부재 ▲상생 협력 인식 부족 등의 업계 현황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상생협력 성공 사례와 함께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한 상생 확산 추진 방침을 밝혔고, 중기부는 정책 체계 혁신과 전문가 진단, 해외 진출 등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으로 상생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지난 2017년 10월 발표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을 중심으로 ▲업계 내 상생협약 체결 증가 ▲가맹본부 CEO 대상 윤리교육 시행 지속 ▲상생 문화 확산 및 윤리 경영 캠페인 전개 등 자정실천안 이행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지원을 위한 8대 상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파리바게뜨(주)파리크라상)와 ▲200여개 가맹점을 정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한 7번가피자(주)7번가사람들)의 상생 우수 사례 발표 시간도 마련됐다.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민간합동워크숍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발표자가 업계의 상생 노력과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자정실천안 이행 실적을 소개하는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소개하는 박현규 공정위 사무관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있는 강환일 산업부 사무관



프랜차이즈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 송상호 중기부 주무관

사례 발표

**파리바게뜨, 가맹점 가족화 등 8개 프로그램 운영
7번가피자, 로열티·물류 아웃소싱으로 상생 실천**

파리바게뜨는 전신 '상미당' 때부터 이어져 온 "상생과 나눔"의 경영 철학 아래 8개의 상생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2011년 6월 상생협력위원회를 발족한 후 같은 해 8월 고충처리위원회 설치·본사 공채 시 가맹점 아르바이트 출신 10% 선발 등이 포함된 동반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14년 7월 상생 전담부서 설치, 2016년 12월 상생협약 체결 등 다양한 상생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2016년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재까지 ▲가맹점 가족화 프로그램 ▲매출활성화 및 손익지원 프로그램 ▲소통 프로그램 ▲객수 창출프로그램 ▲경영능력 향상프로그램 ▲R&D 투자 및 디자인 경영 ▲식품안전시스템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기본으로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연간 약 1500억원을 가맹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가족화 : 학자금 지원, 해외연수 등,
매출 활성화 : 필수품목 축소, 마진을 조정 등, 소통 : 자율분쟁조정기구, 건의사항 수렴 등

7번가피자 역시 업계에서 상생을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7번가피자는 지난 1997년 2월 부산에서 1호점을 오픈한 이래, 현재 전국 188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2018년 7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수익구조를 선진화된 정물로 알티(매출 4%) 방식으로 전환했다. 로알티로의 전환은 본부와 점주(상생가맹점협의회) 간 약 10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다.

7번가피자는 ▲글로벌 기준의 투명한 로열티 방식과 함께 ▲지속적인 물품원가 인하추진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 및 명확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을 실천해오고 있다. 7번가피자 양호용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상생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었다. 특히 지속적인 물품원가 인하를 위해 본부의 물류 유통마진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아웃소싱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7번가피자의 상생협약서에는 「가맹본부는 납품업체로부터 어떠한 차

액가맹금도 수취하지 않으며, 좋은 조건의 업체가 있을 경우 누구나 납품의뢰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토론회

**“상생, 강제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율성 존중하고, 프랜차이즈
본질 인정해줘야”**

전문가 토론에서는 박주영 송실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성훈 세종대 FC MBA 주임교수, 김중무 법무법인 한림 대표변호사, 유재은 프랜코 대표, 한석준 하이데이터 대표 등 업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와 소통을 증진하고 상생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성훈 교수는 '상생'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제해서 성립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프랜차이즈는 태생적으로 수평적 구조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가맹본부가 얼마에 납품하는지보다 '가맹점이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절차에 따른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재은 대표는 “매장 수를 늘리는 것보다 장수하는 브랜드가 목표가 돼야 한다”며, “정부도 이런 측면에 포커스를 맞춘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중무 변호사는 “상생이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며, “자율성을 부여해주며 상생을 권장하는 것과 정부 주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상생 실천 내역을 소개하고 있는 조용찬 파리바게뜨 상무



양호용 7번가피자 이사가 로열티 전환 등 상생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 토론. (왼쪽부터) 김중무 변호사, 한석준 하이데이터 대표, 박주영 송실대 교수, 유재은 프랜코 대표, 이성훈 세종대 교수



조영신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김 변호사는 “국내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국제적 보편성과 거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법제도를 도입할 때 ▲프랜차이즈의 본질에 부합하고, ▲국제적 보편성을 충족하며, ▲현실성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상생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치적인 프레임보다는 프랜차이즈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와 업계가 상생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소통을 확대하고 상생 협약 체결을 맺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자부와 공정위, 중기부 등 프랜차이즈 관련 부처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부·공정위·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율적으로 상생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업계의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간 정책 공조를 확고히 하여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워크숍 등 상생협력 소통행사를 정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조영신 산업부 중견정책기업관,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 김형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김동수 협회 상근부회장, 김범호 SPC 부사장, 장성식 푸리닭치킨 대표, 오재균 직구삼 대표 등을 비롯, 짐보리, 맘스터치, 꼬치사계, 원할머니보쌈, 죽이야기, 델리, 풀잎채, 정관장, 셀렉토키피, 설빙, 뚜레쥬르, 커피베이, 장수돌침대, 생활맥주, 연안식당, 직구삼 등 협회 소속 30여개 브랜드 관계자들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K71]**

“10년 이상 장기 가맹점 평가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계약 갱신 결정”

한국프랜차이즈協, 업계 동반성장 위한

‘장기점포 계약갱신’ 상생협약 체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가 가맹본부와 10년 이상 함께 브랜드 성장에 기여해 온 장기 가맹점들의 계약 갱신을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확산시켜 프랜차이즈 산업의 안정적인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WRITE 김동하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협회는 지난 5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교촌치킨, 네네치킨, BBQ 등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동참하기로 하고 전국가맹점 주협의회와 가이드라인의 업계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앞서 지난 2017년 발표한 자정실천안을 통해 10년 이상 가맹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속 회원사 및 업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가이드라인을 홍보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갱신 관행의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숙화에 따라 장기 가맹점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2008년 도입 당시 가맹점의 계약갱신을 10년까지 담보하기 위한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 분쟁 소지를 줄여 업계의 안정화 및 신뢰도 제고를 도



상생협약식 참석자 전원 단체사진. (왼쪽부터) 이연승 네네치킨 총괄본부장, 김병욱 의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백영호 BBQ 대표이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황학수 교촌치킨 대표, 오영규 맘스터치 상무, 전해철 의원, 양홍모 BBQ 가맹점주협의회장, 김동수 협회 상근부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BBQ 가맹점주 1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BBQ 가맹점주 3인, 이학영 의원, 정찬숙 의원, BBQ 가맹점주 1인, 제윤경 의원, 우원식 의원

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10년 이상 계약 갱신은 원칙적으로 허용 ▲거절은 법정 사유 또는 평가 탈락시에만 가능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결과 열람 절차 등 투명한 절차 마련 ▲거절 시에도 유예 기간 설정 및 원활한 양도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에 동참하는 가맹본부는 장기 운영 가맹점의 평가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평가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본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우수 사례로 게시된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에 동참하도록 독려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동반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생협약식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남인순 최고위원, 전해철·우원식·이학영·김병욱·정찬숙·제윤경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여당 관계자들과 협회 김동수 상근부회장, 이재광·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황학수 교촌치킨 대표이사, 백영호 BBQ 대표이사 등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KFN**



(왼쪽부터) 전해철 의원, 김동수 협회 상근부회장, 허석준 공동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김동수 상근부회장(왼쪽)과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오른쪽)이 상생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가맹금 수취방식 로열티로 전환 시 배점 높아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 배분구조의 공정화와 실질적인 점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이다. 평가 항목은 ▲계약 내용의 공정성(10점), ▲계약 이행 과정의 공정성(50점), ▲상생 협력 정도(25점), ▲자율 준수 노력(15점) 및 법 위반에 따른 감점 등이다.

WRITE 신일영

공정위측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공정위가 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적으로 추진해 온 표준가맹계약서(2019.1월 개정), 차액가맹금 정보제공고시(2019.2월 개정) 및 점주 경영여건 개선방안(2019.3월) 편의점 자율규약(2018.12월 제정) 등의 정책이 상생협약을 통해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필수품목을 줄이거나 로열티 방식으



로 전환하여 가맹금 수취구조나 방식을 투명화 할수록, ▲본부가 점주와 수익을 최대한 공유하고 경영상 지원을 다양하게 많이 할수록 ▲편의점의 경우 영업 위약금뿐만 아니라 시설 위약금도 감면하여 희망 폐업 시 위험을 많이 분담할수록,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할수록 우수 상생업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가맹금 수취방식 투명화 정도를 평가 기준으로 신설한 것이다. 차액가맹금 수취품목 비중 감소를 유도하고, 매출액비례 수익배분 방식인 로열티 구조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비례 수익배분방식인 로열티 구조는 본부·점주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차액가맹금 방식에 비해 수익 배분구조가 보다 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광고·판촉 행사 시 점주 사전 동의 얻어야

광고·판촉 시 사전 동의, 자체·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장기 점포에 대한 계약갱신 이행 등을 통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본사가 광고·판촉행사 시 각각 50%, 70%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비율을 설정하여(4점),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는 점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또한 가맹점주 지원항목 배점을 확대(5점→10점)하고, 지원 내용도 금전·기술·인력·기타 지원으로 세분·다양화하여 상생 협력하는 본사를 높이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가맹금 인하 요청 수용 및 사업 안정화 자금 지원 등 금전 지원의 효과가 가장 직접적인 점을 감안하여 금전 지원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본부와 점주 간 대화 채널 활성화를 위해 본부-점주 간 갈등을 내부적으로 우선 해소하여 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가맹본부 내에 ‘내부 옴부즈만 설치·운영’을 평가 기준으로 신설(2점)했다. 뿐만 아니라, 상권개척 및 브랜드 가치 증진에 장기간 기여한 점주가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도록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희망 폐업 시 위약금 감면 부담을 줄여주고 명절·경조사 시 휴무 신청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생협약 체결업체에는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 비교정보 ‘상생플러스’)에 우수업체 리스트와 상생 지원내용을 제공하여 창업희망자나 점주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2018년 말 기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본죽, 7번가피자 등 총 17개사이며, 4만9000개(전체의 20%) 점포들

이 포함된다.

*17개사_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정관장, 본죽, 7번가피자, 놀부, 바르다김선생, 롯데리아,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ストップ, Emart24

협약 평가 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가맹금 수취 방식 로열티로 전환	① 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 구조로 전환한 정도 ② 작년 대비 구입 강제품목 축소 여부 ③ 매출액 중 필수품목 판매 금액의 비중
점주의 경영여건 개선	① 광고 판촉행사 사전 동의 및 비율 준수여부 ② 점주에 대한 지원 확대 (금전, 기술, 인력, 기타) ③ 옴부즈만 제도 도입 ④ 10년 이상 장기 점포에 대한 계약갱신 이행
편의점자율규약 이행 확보 및 표준계약서 확대	① 상권 분석, 인근 점포 현황 등 정보 제공 ② 명절 및 경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 영업시간 단축 허용 ③ 희망폐업 위약금·시설 위약금 감면 및 실제 위약금 감면 실적 ④ 표준계약서 사용 배점 확대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협약 평가기준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고·판촉행사 실시 전 사전 동의, 점주에 대한 금전지원 확대, 표준계약서 사용 및 로열티 방식 권장 등을 통해 상생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KFN**

“대구·경북 지역 경제 새로운 성장동력”... 8.8~10 ‘제46회 프랜차이즈 대구’

한국프랜차이즈協, 첫 대구 박람회 참가사 모집...

20% 할인된 신규 개최 특별가 등 다양한 특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가 ‘프랜차이즈의 성지’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46회 프랜차이즈대구’를 비롯, 서울과 부산까지 올해 하반기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창업 문화를 선도하는 전국 각지의 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 중이다.

WRITE 김동하



지난해 10월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장을 참관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2018 제44회 프랜차이즈부산 박람회장을 찾은 예비 창업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협회 중앙회와 대구경북지회(지회장 이재백)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글로벌 1위 전시기업 리드엑시비전스(이하 리드社)가 주관하는 ‘2019 제46회 프랜차이즈대구’는 8월 8~10일 대구 엑스코 2홀에서 100여 개사 200여 부스 규모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협회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부산 박람회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시키는 지방 박람회다.

500만 인구의 대구·경북 지역은 교촌치킨, 멕시카나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땅땅치킨 등 지역 내 성공을 발판으로 전국 기업으로 도약한 브랜드들을 다수 배출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메카’다. 또한 대구 지역 가맹본부 수만 해도 서울, 경기도에 이어 광역지자체 중 3위(331개, 6.8%*)를 차지할 정도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다.

*출처 : '19,221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말 기준 가맹사업 현황

특히 최근 최저 임금의 대폭적인 상승과 제조업 시설 이탈을 비롯, 지역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낮은 폐업을 등 많은 순기능을 갖춘 프랜차이즈 산



무인 창업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린토피아 코인워시

업이 은퇴·실업자와 업종전환 희망자 등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가맹사업 전 업종과 ▲주방 및 전자설비, 결제 시스템 등 유관 업종은 물론 ▲창업·자금·법률 컨설팅까지 백화점식 ‘원스톱(One-stop) 쇼핑’ 체제를 구축하고 ▲업계·정부 전문가들의 무료 교육 ▲최적의 성과를 창출하는 레드카펫존 ▲참관객과 업체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매칭’ 등 고유의 시스템을 결합해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극대화하고 참가업체들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협회는 매년 ‘프랜차이즈대구’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의 우수·유망 토종 브랜드와 전국적 브랜드들을 한데 모아 지역 예비 창업자들에게 올바른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의 재도약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회는 ‘제46회 프랜차이즈대구’에 이어

국내 최대규모 프랜차이즈 창업 상담 전시회

IFS 2019-2020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연간 일정

제46회 프랜차이즈 대구	2019년 8월 8일~8월 10일, 대구 엑스코
제47회 프랜차이즈 서울	2019년 10월 3일~10월 5일, 서울 코엑스
제48회 프랜차이즈 부산	2019년 10월 31일~11월 2일, 부산 벡스코
제49회 프랜차이즈 서울	2020년 3월 26일~3월 28일, 서울 코엑스

성공으로 가는 프랜차이즈 사업, 지금 전시 사무국과 상의하세요!

전화 02-6000-1564 이메일 ifs_info@naver.com Website www.ifs-korea.co.kr

주최사 |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orea Franchise Association

▲10.3~5 서울 코엑스 ‘제47회 프랜차이즈서울’ ▲10.31~11.2 부산 벡스코 ‘제48회 프랜차이즈부산’을 통해 하반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창업 열기를 이어간다.

협회는 첫 대구 박람회인 ‘제46회 프랜차이즈대구’ 개최를 기념, 참가사에 20% 할인된 신규 개최 특별가를 제공한다. 또한 ‘제47회 프랜차이즈서울’과 ‘제48회 프랜차이즈부산’은 빠른 신청시 5~10%의 ‘조기접수 할인’과 연속 참가시 5~10%의 ‘연속참가 할인’을 함께 제공한다. 협회 회원사는 모든 협회 박람회 종료 후 부스 임차비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 협회 박람회에 참가를 원하는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들은 프랜차이즈서울·대구·부산 사무국(02-6000-1564), 협회 중앙회 박람회사업팀(02-3471-8135~8내선3), 대구경북지회(053-626-7664), 부산울산경남지회(051-761-2066)로 문의하면 된다. **KFN**

롯데마트 통큰 치킨, 영세가맹점주 폐업으로 내모는 길

“대기업이 영세 치킨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해선 안돼...”

치킨은 창업자와 소비자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다. 지난 3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치킨집 현황 및 시장여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총 11만6000여 곳 중 치킨집이 2만5000개(2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사업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프랜차이즈 창업 중에서도 치킨 집은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점의 21.1%를 차지하는 주요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듯 인기 있는 치킨집도 매년 8000곳 이상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불황’이라는 현실은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WRITE 신일영

지난 3월과 5월 한 대형마트에서 치킨 한 마리를 50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로 화제가 됐다. 다른 외식 프랜차이즈와 달리 치킨집 대부분은 소규모매장에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영세하다.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마트의 저가 물량공세에 맞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임대료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형할인마트와 같은 상권인 한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안 그래도 매장을 접어야할지 고민하고 있던 차였는데, 대기업에서 저러니 결론이 명확해지는 것 같다”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이 가맹점주는 “저런 이벤트를 할 때마다 매출이 팍팍 내려간다. 그럴 때마다 영세한 가맹점주의 한계를 절감한다”며 아쉬워했다.

이런 반응은 동네 일반 치킨집은 물론이고, 비교적 상황이 나아보이는 대형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마찬가지였다. 치킨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

금력 약한 가맹점이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을 앞세운 대형마트의 공세에 도저히 맞설 수 없다. 가맹본부 차원의 공동 대응이라면 모를까”라며 여운을 남겼다.

당시 업계에서는 “정부와 프랜차이즈업체가 상생을 통해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통큰 치킨’은 9년 전에 처음으로 출시됐다가 골목상권 침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박기영)도 롯데마트에 ‘통큰 치킨’이름으로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치킨을 판매하는데 대해 할인행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협회는 당시 롯데마트에 공문을 보내 “치킨업종은 1인 사업자 비율이 가장 높고, 연 매출액은 가장 낮으면서도 부채율은 가장 높은, 외식업종 가운데도 가장 취약하고 영세성이 높은 업종”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롯데마트가 자칫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외식업종의 폐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영세 치킨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할인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U20월드컵 기간인 6월에도 통큰치킨을 한시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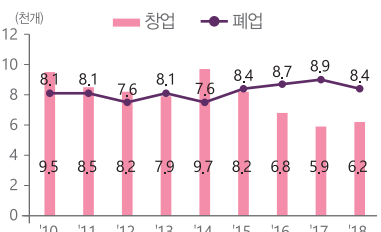
치킨점 창업은 감소·폐업은 증가

영업이익 감소·영업비용은 증가... 개선 가능성은 낮아

지난 6월 3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치킨집 현황 및 시장여건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업태가 ‘통닭(치킨)’이나 ‘호프·통닭’으로 분류된 음식점은 약 8만7000곳에 달했다. 그 중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는 409개, 가맹점은 2만5000개로 전체 한식 프랜차이즈 매장 5개 중 1개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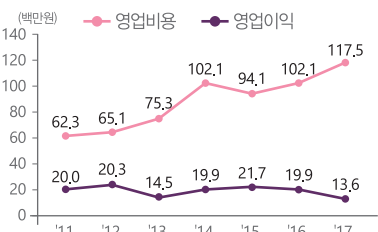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닭고기 소비량이 늘고 전체 매출 규모가 증가하는 등 치킨 시장의 수요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쟁 심화와 비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하락 등으로 악화된 영업 여건은 당분간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치킨집 창업 및 폐업 추이



자료 : 지방행정인허가

치킨전문점 비용 및 이익 추이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및 경제총조사

또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창업 및 운영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매출액도 다른 외식업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창업은 2014년 9만7000개에서 2018년 6만2000개로 감소한 반면, 폐업은 2015년 이후 매년 8000개 이상 발생해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영업이익도 2015년을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킨전문점의 영업비용은 2011년 6200만원에서 2017년 1억1700만원으로 89%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32%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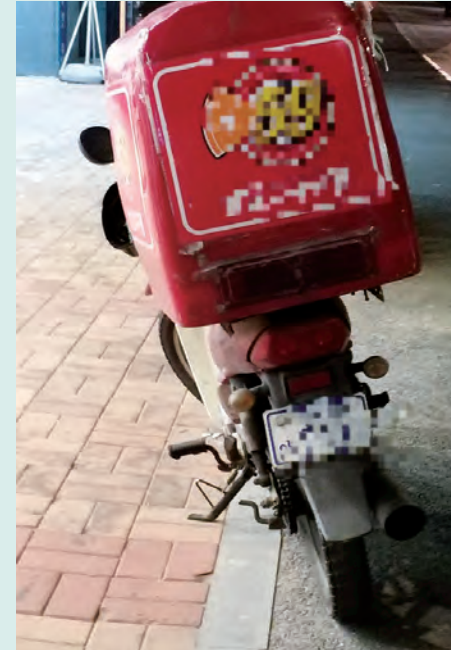
이는 달리 말하면, 치킨점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영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는 치킨집 영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당분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KFI**

“폭언 피해 심리 상담까지”...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의무 부과

재해율 높은 외식편의점업 중

가맹점수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

WRITE 김은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지난 4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에 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배달업 사업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신설규정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법의 주요 위임사항	하위 규정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제78조 -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672조 - 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 확인, 안전운행 관련 조치
가맹본부의 안전·보건 프로그램 등 제공	- 제7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	- 영 제70조 - 외식업 전체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 제26조의2 - 고객응대근로자 치료·예방위한 필요한 조치	- 영 제25조의7 - 업무 전환·종단, 휴게 연장 - 치료 및 상담 지원

이번 개정법은 먼저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책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가맹점의 산재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종 가맹점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로 대상을 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수 200개가 넘는 가맹본부 중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본부와 중견 가맹본부를 제외한 중소규모의 가맹본부들이 다소 애매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정부의 각종 가맹본부 규제정책으로 가맹점주의 목소리가 이전보다는 커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정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요구가 전달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배달종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배달종사자의 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도 강화했다. 배민라이더스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 배달앱 대형 업체들은 배달 종사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들을 이미 마련해 적용하고 있지만, 소형업체들로서는 당장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 배달기사의 면허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관계당

국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등 문제가 간단치만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고용부는 하위법령 개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과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 중 일부 노·사 의견이 대립한 부분에서는 규제의 실현가능성·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안법 제26조의2 1·2항 및 시행령 25조의7 3항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근로자 등)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관련 치료’와 특히 **〈심리적 치료와 안정을 위한 각종 상담〉**까지도 지원할 의무가 부과돼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일은 2020년 1월 16일(다만, MSDS관련규정은 '21.1.16)이며, 위 하위법령 외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등 72개 고시·지침의 개정도 추진된다. **KFN**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4.22~6.3)

01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9개 직종(보험설계사, 캐디 등) 및 배달앱 종사자 보호 규정 신설 등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02 건설 도급인에게 설치·해체과정에서 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부여, 유해물질* 취급 작업의 사내도급 시 승인 의무화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03 제조업 500인 이상, 시공능력 1000억 건설회사 대표이사 산재예방의무 부과 등

발주자, 대표이사 등의 책임 강화



정부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빈속은 채워주고 뭉친 속은 풀어준다네

든든하고 푸짐한 한 그릇, 바우네 나주곰탕

길을 걷다가 이런 밥집을 만나면 좋겠다.

출출한 배속을 든든히 채워주는 집, 심드렁한 기분을 따뜻하게 바꿔주는 집.

충실한 곰탕 한 그릇이면 가능하다. 만 원 지폐 한 장을 내밀고도 넉넉히 돌아오는 거스름돈. 바우네 나주곰탕의 명성을 먼저 듣고, 바우네 나주곰탕의 창시자 박일 대표를 만났다.

INTERVIEW 이진창 발행인 | WRITE 이근정 편집위원

(주)GF포유  나주곰탕
박일 대표

경험으로 뚝친 남자

박일 대표가 외식업계에서 쌓아온 공력은 크고 묵직하다.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현대엔지니어링에 입사한 청년 박 대표는 일찌감치 더 큰 꿈을 품었다. 인문계와 자연계로 양분된 교육과정 체계에서 자연계를 택한 그는 젊은 박일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관심과 학습력을 갖고 있었다.

“젊은 시절엔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산업공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나와 딱 맞는다는 생각은 안 들었죠.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잘 다니던 현대엔지니어링을 나와 글 쓴다고 틀어박혀보니까 현실하고는 다르긴 했지만요.”

이상에 압도되기보다는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고 싶었던 박일 대표는 책상 앞에서 나와 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때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열기를 받아 외식산업에도 큰 바람이 불던 때였다. 박일 대표는 <맥코이 양념통닭>에 몸담으면서 체인사업의 묘미를 느꼈다.

“장사가 꽤 잘 됐어요. 그러다가 1994년에 제 사업체를 열었지요. 이름이 <호프맨> 바였어요. 생맥주 체인점이었죠.”

양념통닭에서 생맥주로 옮겨갔지만 박일 대표가 관심을 둔 것은 외식업만이 아니었다. 그는 <호프맨> 바를 성공시킨 후 셀프 세차장에 주목했다. 공학도 출신이면서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고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박일 대표는 생활의 다양한 필요에 마음이 열려 있었다. 여기에 더해 꺼지지 않는 도전의식이 그의 추동력이었다.

“셀프 세차장을 운영한 다음에는 중국집을 차렸어요. 상호가 <짜장면 시키신 분>이었죠. 유명한 TV광고가 있어요. 중국집 배달원이 배를 타고 마라도에 와서 ‘짜장면 시키신 분’을 찾는 광고예요. 최장단 섬 마라도까지 열심히 가서 짜장면을 배달한다는 내용이 소비자를 웃게 만들었죠. 그 후로 마라도에 진짜로 중국집들이 생겨서 다들 마라도에 가면 짜장면 한 그

릇 먹고 오는 것이 여행코스처럼 됐잖아요.”

<짜장면 시키신 분>은 가맹점이 1200개에 이르렀다. 박일 대표는 그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2001년 새 브랜드 <굴사랑>을 선보였다. “<굴사랑>도 잘됐어요. 굴국밥하고 석화구이가 주력 메뉴였는데 신선한 굴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먹혀들었죠. 그렇지 만 단점도 있었어요. 계절을 탄다는 점이지요.”

박일 대표는 <굴사랑>을 성공시킨 후 보드게임 매장을 시험 운영하다가 2004년 화로구이 아이템을 가지고 중국으로 진출했다. 당시 중국에서 화로구이가 막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한국식 화로구이로 도전한 것이다. 그런데 생각만큼 잘되지 않았다. 시도와 배움, 성공과 실패, 돌진과 성찰이 서로 부딪치며 불꽃을 일으키던 시절이었다.

“중국에 부딪쳐 보니까 내가 메뉴만 알지 고기 기술은 모르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나는 왜 프랜차이즈를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었지요. 프랜차이즈는 유통을 잘못하면 실패해요. 그리고 외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자재예요.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믿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잘하자고 마음먹었어요.”

레드오션에 던진 승부수

레드오션Red Ocean은 이미 잘 알려져 경쟁이 치열한 특정 산업 내의 기존 시장을 의미한다. 산업의 경계가 이미 정의되어 있고 경쟁자 수도 많기 때문에, 같은 목표와 같은 고객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박일 대표가 그때까지 십수 년 몸담아온 외식 시장도 레드오션이었다. 여기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박일 대표는 차별성 있는 아이템과 기획으로 승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만이 내놓을 수 있는 식자재를 개발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2000년에 무한리필 고깃집을 목표로 두고 고기에 집중했어요. 부위별로 다 사서 직접 가공도 해보면서 최

상의 식재료를 만들어내려고 애썼죠.”

고기 맛은 육즙을 보존하는 것이 관건이다.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는 해동 방법과 숙성 방법을 찾는 것에 그 열쇠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브랜드가 <무한마을>. 일인당 만 3000원을 내면 어떤 부위든 양껏 먹을 수 있는 고기구이집이었다. 월 매출액이 2억 원에 이르는 매장까지 나왔다.

박일 대표가 세상에 내놓은 브랜드는 이렇게 많다. 지금 그는 <바우네>를 가장 앞자리에 두고 있다. 올해 다섯 살 먹은 브랜드. 구수하고 든든한 나주식 곰탕을 내놓는 브랜드다. “국밥은 주식도 되고 간식도 돼요. 일인가구가 날로 늘어나는데 혼밥, 혼술에도 맞죠. 지금 국밥 시장에서 순댓국은 과포화 상태예요. 닭곰탕도 전망이 어두운데 워낙 프라이드치킨 쪽으로 소비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답은 소고기밖에 없어요. 갈비탕은 빨리 질린다는 점에서 제외했고, 설렁탕과 곰탕 중에서 고민했어요. 설렁탕은 양지와 사태로 국물을 내는데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다는 점이 걸렸어요. 곰탕은 소머리, 내장, 뼈다귀를 다 쓰니까 설렁탕에 견줘 재료 가격이 안정된 게 장점이죠. 조사해보니까 선점 브랜드도 없더라고요. 이거다 싶었죠.”

믿음직한 국밥 브랜드를 내놓기까지 박일 대표는 믿음직한 파트너를 만나는 데 공을 들였다. “좋은 공장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의식 있는 고기가공업자를 만나야 하거든요. 저는 도축한 지 3개월이 지난 냉동육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3개월 미만의 냉동육을 가공공장에 가져가도 바꿔치기하는 업자가 있어요. 오래된 고기로 바꿔치기해서 삶는 거죠. 어떤 업자는 덜 삶아서 갖다 주기도 해요. 무게를 늘리려는 꼼수죠.”

박일 대표는 직영점을 두 곳 운영해본 후 가장 잘하는 공장 두 곳을 선택했다. 고기 삶는

66
바우는 ‘바위’쥬.
여러 지역에서 바위를 바우라고 불러요.
바위는 단단하고 듬직하잖아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게
건강을 지켜준다는 뜻으로 지었어요.



공장과 육수 만드는 공장이었다. 일 년 반 동안 외출도 줄이고 후속 메뉴를 개발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이렇게 식자재가 자리를 잡자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순댓국을 하던 집이 바우네 나주곰탕으로 간판을 바꿔 단 후 매출이 갑절로 뛴 업장도 생겼다. 현재 바우네 가맹점은 전국에 227개. 산뜻한 분위기의 바우네 나주곰탕 집들이 정갈하고 든든하며 맛깔스러운 곰탕 맛에 빠진 손님들의 배를 채워주고 있다.

신뢰와 같은 이름, 바우네

상호 ‘바우네’는 정겹고 우직한 느낌을 물씬 풍긴다. 이름을 짓게 된 연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바우는 ‘바위’쥬. 여러 지역에서 바위를 바우라고 불러요. 바위는 단단하고 듬직하잖아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게 건강을 지켜준다는 뜻으로 지었어요. 장모님이 예전에 나주 영산포에서 국밥집을 하셨는데 장사를 참 잘하셨어요. 아내가 장모님한테서 배워 그 맛을 낼 줄 알아요. 바우네 나주곰탕의 정신은 장모님이 국밥을 말던 시절까지 70년을 거슬러 올라가죠.”

<바우네> 매장을 찾은 손님 열에 넷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 먹고 갈 만큼 골수팬이 된다. 깔끔한 국물, 가격을 믿기 어려울 만큼 수북한 고기 건더기가 손님의 마음까지 흐뭇하



게 채워준다. “올해 목표는 모든 메뉴의 명품화예요. 안주 그릇도 고급화하고 토핑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어요. 가맹점에 좋은 식재료를 싸게 안정적으로 주고 새 메뉴를 개발해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매장 이벤트용으로 소포장 육수와 소고기추장도 만들었어요. 고기도 앞으로 6개월 분은 확보했으니까 가격을 올릴 일이 없어요.”

박일 대표는 자신과 약속하듯이 가맹점주들에게도 신뢰를 약속한다. 그는 새 매장이 개점하는 날이면 반드시 방문한다. 그리고 바쁜 점심 시간을 피해서 간다. 가서는 매장 주위를 한 시간 넘게 둘러보고 들어간다. 점주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를 달라고 한다. 이유는 간명하다. 같이 고민해서 같이 가야 하니까.

사훈은 애기애타(愛己愛他).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자는 뜻이다. 나를 제대로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고, 그 반대도 성립할 것이다. 나와 남이 같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진솔한 깨달음에 바탕을 둔 사훈이다.

“몽치기 힘든 사람들이 몽치려면 누군가 정착제가 돼야 해요. 벽돌과 벽돌 사이를 메우는 시멘트처럼요. 바로 내가 시멘트가 되겠다는 마음 가짐이 있어야 몽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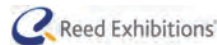
이것은 박일 대표가 프랜차이즈협회에 건네는 말이지만 꼭 거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30년 동안 열 개가 넘는 사업체를 띄워올리며 듬직하고도 촘촘한 관계망을 엮어온 박일 대표. 자신과 함께 길을 걷는 그 모든 파트너들을 모시는 말이자 자신을 갈고 닦는 말이기도 하다. **K771**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국가 산업 기여도 매우 높아… 부정적 관점 보다 긍정적 관심 갖고 바라봐야”

국내에서 1년 동안 개최되는 전시회는 대략 590회, 전시장은 15개 정도다(2017년 기준). 대부분 국내 전시 전문 업체들이 주관하고 있으며, 외국계 전시 주관 업체들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규 전시 개발 및 국내 전시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기존 전시 발전을 도모하는 글로벌 전시회사는 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대표 손주범, 이하 리드코리아)가 거의 유일하다. 리드코리아는 글로벌 전시전문 주최사인 리드엑시비션스의 한국 법인으로, 전 세계 30개국에서 500개 이상의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코엑스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인 IFS(International Franchise Show) - 프랜차이즈 서울 상반기/하반기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리드코리아 손주범 대표로부터 전시산업과 효과적인 전시회 참가방법 등에 대해서 들었다.

INTERVIEW 이진창

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 

손주범 대표

손 대표는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강조하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연 뒤, ‘한 분야의 산업을 특정 시점 및 특정 분야에서만 평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관점에서 배경 및 성장과정 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산업에서 소위 ‘갑질’이 프랜차이즈산업의 급성장 과정 속에서 일부 가맹본부의 문제가 아니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세계적으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만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나라도 드물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큰 이슈화되고, 서포트 받지 못하는 부분은 너무 아쉽다”고 했다.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발전 및 지속적 성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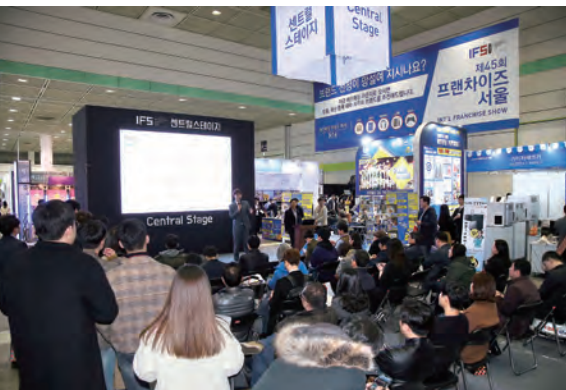
손 대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진행한 몇 차례의 프랜차이즈전시회에 대한 업계의 평가에 대해서 담담하게 말했다.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박람회의 격이 높아졌다”는 평가와 함께 “해외 참여업체가 점점 늘어나지만, 좀 더 국제화되면 좋겠다”라는 평가도 있다. 손 대표는 “우선 전시회가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단기간 전략적 관점으로 질적 성장을 강조한 부분은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예로, 기존의 전체 방문자 수에만 강조하던 부분을 실제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과 프랜차이즈산업 종사자 등 질 높은 사람들의 방문에 더욱 포커스를 맞춰서 순 방문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방문객 개개인의 질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방문객 숫자로 전시회의 성공여부를 평가할 수 없지

만, 전시 사전 등록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부분과 질 높은 관람객들의 관심 및 참가가 높아지는 부분은 실속 있는 전시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전시회 국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과 1~2년 만에 전시회를 국제화 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전시회 자체의 질적 성장을 우선하되 이를 바탕으로 해외 참여업체 및 해외 바이어의 방문 프로모션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현재는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에 관심이 많은 아시아 나라들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이후 점차적으로 유럽 및 미국 업체들의 참여를 프로모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리드의 해외 전시 참여를 프로모션하는 ‘인터내셔널 세일즈 그룹’의 적극적 세일즈 활동과 전 세계 프랜차이즈협회의 연결망을 통한 도움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리드엑시비션스, 전 세계 30개국서 활약 인프라 활용… 국제적 전시회로 성장시킬 것”

손 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세계 최대의 프랜차이즈 전시회로 평가받는 프랑스의 파리 프랜차이즈전시회(리드엑시비션스, 프랑스 프랜차이즈협회 공동 주관)는 외식업, 비외식업 외 다양한 분야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외의 연관업체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버금가는 전시회를 목표로 한다면, 프랜차이즈 연관 산업의 참여율을 높여서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려는 방문객들에



게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손 대표는 “현재 프랜차이즈 서울 상반기/하반기를 합친다면 아시아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전시회로 본다”고 말한 뒤, “그러나 규모와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참가업체와 질 높은 방문객의 참여율을 높여, 효과적인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를 통해 전시 참여 결과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드코리아는 현재 해양 선박산업, 전자제조, 홈인테리어, 뷰티, 카페, 팝문화 산업 등의 주목받는 전시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그 중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의 국제 경쟁력 및 산업중요도를 고려할 때, 프랜차이즈 전시회를 더욱 강조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국내 프랜차이즈전시회의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방문고객 니즈 등 분석·제공

참가성격·목적별 부스 구성으로 매칭을 높여
손 대표는 전시회에 참가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관사 측에서 효과적인 세일즈 프로모션을 준비해야 하지만, 참가업체에서도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참가업체가 사장 및 임원 분들이 참여하여, 기존 중요 바이어 관리 및 새로운 바이어를 창출하는데 전시회를 가장 중요한 프로모션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면대면의 많은 기회를 통해 고객들의 의견들을 직접 청취, 경영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업체는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하는 업체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 같다. 전시회는 전시 주관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참가업체들의 총합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은 다음 전시회 참가에 대한 사전 예약율이 70프로에 이를 정도로 적극적이다. 반면 한국은 전시회에 참가사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이로 인해 전시회 홍보 및 전시 참가사들의 효과적인 전시회 준비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리드코리아의 노력에 대해서도 말했다. 기본적으로 전시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문객이다. 전시회의 기존 참가자 프로파일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외 유사 전시 및 산업의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향후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정해야 하는지를 분석하여 질적 양적 방문자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은퇴자들의 프랜차이즈 창업 니즈가 높아 방문율이 높았지만, 요즘에는 젊은 층들의 방문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전략적 홍보 수단의 변화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리드코리아는 방문객들의 방문 목적, 관심업종, 예산규모 등을 사전에 조사·분석해서 추천 참가업체 리스트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온라인 등록을 통해서, 직접 사전 방문객 및 참가사가 상대방의 관심 고객에게 전시회 기간 동안 미팅을 셋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매칭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 한정된 시공간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리드코리아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온 온라인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과 참가업체 추천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전시회 참가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높은 재방문 비율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드코리아는 또한 전시장을 참가업체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부스를 구성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고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을 위한 ‘글로벌브랜드 존’, 전국으로 가맹점을 확장하려는 목표를 갖고 참가한 업체를 위한 ‘탑브랜드 리더십 존’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사들에게 최적의 맞춤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66 전시산업은 한 나라의 경제수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전시산업 육성해야..



손 대표는 “국내 전시산업은 경제규모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말했다.

“전시산업은 한 나라의 무역과 GDP 등이 중요한 부분으로, 국가의 산업 경제수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잘 나타내는 지표”라며, “한국의 경제규모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전시산업을 육성시켜, 글로벌 규모의 전시산업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감안하면, 적어도 전 세계, 최소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시회는 여러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적 규모의 전시장도 부족하고, 세계적인 전시회는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전시회는 ‘관광과 문화가 결합된

산업”이라고 정의하며 포괄적인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전시산업은 제조업이나 소비재 산업 등 일반산업의 성장, 발전을 돕기 위한 회사들의 전략적 지원만으로 발전되는게 아닌, 다양한 전시 조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시 선진국과 많이 벌어진 격차와 엄청난 규모를 키워나가는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전시 인프라 및 포괄적 정부 산업 육성책, 그리고 전시 참여사와 관람객들의 효율적인 교육 및 전시 주관사들의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투자 및 노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산업 강점 분야 및 문화, 관광의 전략적 활용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리드코리아의 미션이 “산업을 재정의해서 산업의 돌파구를 보여주자”이다.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라는 전시회가 관련 산업의 트렌드 및 미래 방향을 이끌어 나가듯이, 전시회는 하나의 산업전시로써 단순히 회사 및 브랜드의 홍보 및 바이어와의 만남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통합적인 그 산업의 미래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우리 프랜차이즈전시에 적용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국내외 우수한 기업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가진 신생회사들의 적극적 참여 도움, 그리고 방문객으로 회사 바이어들만이 아니라, 학계·정부관계자·유관 산업 종사자들의 포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세계적인 클래스의 컨퍼런스, 세미나 등의 주관을 통해 프랜차이즈산업의 현재 트렌드 및 미래 방향성 그리고 사업기회를 제시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대표는 “전시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프랜차이즈협회와 코엑스의 건설적인 협력에 감사하다”며 곧 우리 전시회가 세계적인 전시회가 될 거라고 확신했다. **KFN**



세무 · 회계부문, 프랜차이즈 지평 열고 ‘GTAX시스템’ 개발로 건강한 기업 도와

선한 인상과 부드러운 음성, 가현택스 최인용 대표세무사의 인상이다.

전국 30개 지점을 대표하는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이자 1000여명이 넘는 연대FCEO
총동문회 사무총장, 두 가지 업무를 겸하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똑 부러진
일처리로 선후배로부터 두루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받은 수강료 전액을 기부한 사례는 그의 인품을
말해주는 사례 중 하나. 최인용 세무사로부터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인연,
가현택스, 프랜차이즈 업계 현안 등에 대해 가감 없이 들어봤다.

INTERVIEW 이진창 발행인

가현택스 **가현**세무법인

최인용 대표세무사

최인용 세무사가 프랜차이즈와 인연을 맺은 건 15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세대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에 입학한 해다. 최인용 세무사도 처음에는 세무(稅務)와 프랜차이즈는 별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이템화 할 수 있는 소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음식점은 ‘소스’를 아이템화해서 프랜차이즈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프랜차이즈 순위 10위권 안에 서비스업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세무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시도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다. 연세대 프랜차이즈 경영자과정에 입학, 프랜차이즈에 대해 공부하며 세무를 프랜차이즈와 접목하는 방법을 찾는데 몰두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기업에 제공해주던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자는 것이다. 바로 가현텍스의 ‘GTAX시스템’이다.

‘GTAX시스템’은 국내 유일

기업의 건강관리 재무검진 프로그램

‘GTAX시스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매출 UP&DOWN>과 <재무검진>프로그램이다. <매출 UP&DOWN>프로그램은 동종업계의 매출 상승 및 하락현황을 보여줌으로써 본사의 실적을 분석할 수 있다. <재무검진>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내용의 분석을 토대로 매출·입 및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사업현황을 스마트하게 분석해준다. <적정매입>과 <인건비율>프로그램은 적절한 매입율과 인건비율을 분석·제시하고, <변동비율>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기업이 간과하고 있는 변동비율을 파악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준다. 또한 <손익분기>프로그램은 손익분기점과 부가가치세액 및 소득·법인세액 등을 예상해줌으로써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

‘가현텍스’는 분야별 역량 있는 전문 세무사그룹 최인용 세무사는 “기업도 사람과 같아서 튼튼

하고 건강한 기업이 장수한다. 건강하지 않은 기업은 주변 환경에 취약하다. 문제는 기업이 쓰러지면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세무사의 역할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가현텍스는 전국에 30개의 지점을 두고 있고, 30개 지점의 세무사들 중 12명이 세무서장 출신인 국내 최대 네트워크그룹이다. 또한 전국 30개 가현텍스 지점은 세무관리 재무검진 프로그램인 ‘GTAX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우리나라에 없는 세무서비스 10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가현텍스는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전국에 약 3000여 업체의 고객을 관리해주고 있다. 최인용세무사는 프랜차이즈와 재산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주요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안 발표할 때, 실리와 명분 챙기고, ‘팁문화 정착과 중복인력 조정으로 건강한 구조 만들자’

최인용 세무사는 현재의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 “각종 규제와 인건비·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며, “가맹점주의 소득이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인용 세무사는 건강한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첫째는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

정부가 규제안을 발표할 때 업계도 무언가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보자. 공정위는 차액가맹금 수취품목 비중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매출액비례 수익배분방식인 로열티 구조를 권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로열티제도를 권장할 때, 공정위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업계 입장을 요구하지는 것이다. 로열티 기준을 공정위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지만 할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도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요

구할 건 요구하면서 실리와 명분을 챙기자는 것이다.

둘째는 팁 문화를 정착시키자.

일본은 팁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팁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는 나라는 최저임금 기준도 낮다. 팁은 매출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점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부가가치세를 절감시켜준다. 또한 직원들의 동기 유발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미용실이 봉사료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법적 근거도 있다. 외식업종 중 서빙이 필요한 고기집이나 한정식 등은 이를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에 공감하는 사회적 인식도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는 작지만 튼튼한 기업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본사가 슬림해져야 한다. 본사에 중복 인력을 최소화하고 잉여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슈퍼바이저 등 특정 업무를 공유화하는 방법이다. 소위 ‘공유 슈퍼바이저’다. 슈퍼바이저를 업계 공동으로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본사의 조직을 줄이는 것이다. 미국의 스노우폭스나 영국의 벤스쿠키 등은 슬림하면서 강한 기업이다. 프랜차이즈협회 등 준 공적기관에서 관리·공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본사가 건강하려면 작아져야 한다. **KFN**

가현텍스 세무사무소는...

일반 세무사무소 상호는 <홍길동 세무사무소>, 가현텍스 세무사무소 상호는 <가현텍스 홍길동 세무사무소>로 표기된다. 각각의 세무사무소가 가현텍스라는 네이밍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GTAX시스템’이라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각각의 지점이 독립 세무사무소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현텍스>라는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세무사무소인 셈이다.

건강한 기업을 위한 스마트한 세무관리의 시작

나의사업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한 나의 사업현황. 동종업계와 비교한 매출분석, 매입분석, 인건비분석, 예상세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지 어디서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무업무 게시판

세무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담당자와 어떤 내용을 주고 받으셨나요? 중요한건 잊지 않으셨나요? 게시판 내용이 메일과 문자로 연동되고 담당자 교체시에도 업무 진행사항을 쉽게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나의신고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한 나의 신고현황.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분석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무 동영상 강의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세요. 기업의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시 자금출처, 법인 설립의 절차, 과점주주의 책임 등,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과 주요 실무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강좌입니다.

증빙서류 보내기

증빙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장 및 세무신고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모바일로 쉽게 촬영하고 간편하게 전송하세요.

카드뉴스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무이수가 쉬워집니다. 쉬운 설명과 모바일에 최적화된 이미지로 GTAX의 카드뉴스를 읽어보세요. 카드뉴스는 매주 업데이트 되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업현황, 잘 체크하고 계신가요?

동종업계와 비교한 매출분석, 매입분석, 인건비분석, 예상세금 등을 쉽고 빠르게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지 GTAX SYSTEM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www.gtax.kr

상담문의 : 02)555-5025



한국짐보리(주)짐월드, 반려견 예능 ‘그랜드 부다게스트’ 협찬…기념 할인 이벤트

글로벌 영유아 놀이교육 기업인 한국짐보리(주)짐월드(대표 박기영)의 신개념 창의 블록 ‘클릭포머스’가 JTBC2의 신규 반려견 예능프로그램 ‘그랜드 부다게스트’의 제작 협찬을 진행한다.

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기념해 7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클릭포머스의 전 제품을 30%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애견 호텔 ‘그랜드 부다게스트’에서는 클릭포머스로 만든 다양한 강아지 조형물들이 방송에 조영되며 출연진 및 유기견들과 함께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김가네, 창립 25주년 기념 다섯글자평 이벤트 개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김가네(회장 김용만)가 창립 25주년 기념일을 맞아 해 ‘최애 메뉴 5글자평’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 5월 10일까지 진행된 이번 이벤트는 김가네에서 맛있게 먹었던 메뉴를 5글자로 표현해 김가네 공식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면 되는 방식으로, 추첨을 통해 애플 아이폰 Pro 64GB Wifi,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카카오프렌즈 무드사운드, 김가네 외식 상품권 1만원권 등을 증정했다. 이벤트에 앞서 김가네 관계자는 “김가네가 25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보내주신 고객분들 덕분이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한 이벤트인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할머니보쌈·족발, ‘원앤원 장학회’ 운영 사회공헌 활동 지속

원앤원(주)(대표 박천희)이 운영하는 원할머니보쌈·족발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원앤원 장학회’를 통한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원앤원은 장학회 시행 첫 해부터 현재까지 약 7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일조하고 있다. 올해 3월

에는 ‘운호고등학교’ 장학생을 선발하여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원할머니보쌈·족발 관계자는 “우수한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정진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사회적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본아이에프 본설, 가정의 달 기념 마라톤 대회 참여·후원

본아이에프(대표 김철호)의 설렁탕 브랜드 ‘본설’이 가정의 달과 입양의 날을 기념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 및 후원하며 입양 인식 개선을 통한 국내 입양 활성화에 기여했다. 본설은 자사 임직원들이 지난 5월 4일 한강 시민공원 여의도 이벤트 광장에서 동방사회복지회와 대한직장인체육회가 개최한 ‘가정의 달 및 입양의 날 기념 마

라톤 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설 신정안 본부장은 “가정의 달과 입양의 날을 기념하며 본설 직원 모두가 국·내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본설령탕 제품을 후원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크린토피아, 모델 차은우 온라인 광고 영상 공개

크린토피아(대표 이범돈)가 자사 모델 차은우와 ‘크린토피아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슬로건을 담은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수트편, 미세먼지편, 이불편, 운동화편, 패딩편 총 5편으로 구성되었고, 각각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고 완벽한 세탁을 위해 크린토피아를 찾는 차은우의 모습을 담았다. 광고 영상은 크린토피아의 공식 온라인

채널인 인스타, 트위터 등에 공개됐으며, 지난 4월부터 유튜브, 네이버TV 및 극장 광고를 통해 선보였다.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최근 코인 빨래방 등 크린토피아의 세탁 서비스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만큼 젊은 소비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디지털 광고 화법에 맞는 범퍼 광고를 제작 공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 독거 어르신에게 가정간편식 나눔 활동

해마로푸드서비스(회장 정현식)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내 독거 어르신을 위해 강동구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 가정간편식(HMR)을 후원했다. 후원 제품은 가정간편식 ‘파칼칼닭개장’과 ‘파송송닭곰탕’으로, 지난 5월 10일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어버이날 행사에서 지역 내 재가·독거 어

르신 위한 점심식사와 함께 증정용으로 제공됐다. 오영규 해마로푸드서비스 대외협력실장은 “가정의 달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파리바게뜨, ‘파바 딜리버리’ 가정의 달 제품 주문 10만건 달성

파리바게뜨(대표 권인태)의 ‘파바 딜리버리’를 통한 가정의 달 제품 배달 주문이 10만건을 돌파했다. 파리바게뜨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케이크, 선물세트 등 기획제품을 선보인 바 있으며, 이 기획 제품을 지난 5월 1일부터 9일까지 파바 딜리버리로 주문한 누적 주문량이 1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작년 2018년 9월에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시작한 파바 딜리버리 서비스는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케이크, 빵, 샌드위치, 음료 등 파리바게뜨의 주요 제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SPC그룹의 해피포인트 멤버십 어플리케이션인 해피맵의 해피오더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기요 등 주문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죽이야기, 클래식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개최

죽이야기(대표 임영서)가 지난 5월 15일 죽이야기 본사 내 비전홀에서 제2회 힐링콘서트 ‘클래식 있는 스토리’를 개최했다. 이는 올해 4월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죽이야기의 임영서 대표가 직접 관객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자 기획됐다. 이번 콘서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화목한 가정’이라는 주제

로 마련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토코코 중간에는 피아니스트 조윤미가 직접 연주하는 클래식 선율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임영서 대표는 “이번 힐링스토리는 가정의 달을 맞아 화목한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매월 다양한 주제들과 함께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수돌침대, 2019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9년 연속 수상

(주)장수산업(대표 장순옥)이 지난 3월 28일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건강침대 부문 9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장수돌침대는 올해 27주년을 맞은 국내 장수 기업이자 건강침대 업계 1위 브랜드로, 2004년 · 2015년 · 2017년에 대통령 표창을 3회 연속 수상하며 오랜 기간

국내에서 호응을 얻었다. 장수돌침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직접 뽑아주셔서 수상하게 된 만큼 감사한 마음이 크다. 앞으로도 건강침대 1위 기업으로서 제품 혁신에 힘을 쏟아 한국 전통 문물문화를 널리 알리고 고객 중심의 경영으로 모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빅토리어스 최고당돈가스, 식약처장 표창수상

최고당돈가스의 본사인 (주)빅토리어스(대표 손우빈)가 지난 5월 8일 청담동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2019 창조혁신경영대상/재능나눔공헌대상'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표창을 수상했다. (주)빅토리어스의 '최고당돈가스'는 대표 메뉴인 생등심돈가스에 국내산 생등심 원육만을 사용하여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맛을 간직한 돈가스를 손님들에게 제

공하고 있으며, 바른먹거리 문화를 선도해 이바지하여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을 하게 됐다. 최고당돈가스의 (주)빅토리어스 손우빈 대표는 "이번 수상으로 앞으로도 외식 문화 발전 및 창조경영과 나눔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바른 식재료 선정과 유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네네치킨, 신메뉴 '매콤치즈스노잉' 출시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대표 현철호)이 신메뉴 '매콤치즈스노잉'을 출시했다. 매콤치즈스노잉은 네네치킨이 치킨업계 최초로 선보였던 치즈 맛 치킨인 치즈노잉에 매콤함을 더한 메뉴다. 바삭한 후라이드 치킨에 입안에서 녹는 진한 체다 치즈 가루와 청양초 분말이 어우러져 매콤 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매콤치즈스노잉은 치즈스노잉, 그린스노

잉에 이어 시리즈화 한 제품으로 강렬하지 않고 부드럽게 퍼지는 매콤함과 바삭한 식감을 함께 맛볼 수 있으며,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5월 26일까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한 인증샷 경품 이벤트를 진행했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꾸준히 인기 있는 제품을 시리즈화함으로써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암샘김밥, 인천야구장 관람객에 무료시식 이벤트 진행

프리미엄 분식 프랜차이즈 암샘김밥(대표 김은광)이 최근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 시즌을 맞아 지난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SK와이번스의 홈구장인 인천 행복드림구장에서 무료 시식 이벤트를 진행했다. 구장 내 매표소 인근에 있는 암샘김밥의 이벤트 차량에서 암샘김밥의 대표 메뉴인 김밥과 떡볶이를 선보였으며, 행사 기

간 중 인천 행복드림구장의 그린존(잔디밭존)에 방문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벤트 행사에 참여해 암샘김밥의 메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암샘김밥의 관계자는 "야구 응원 열기가 무르익어 가는 시기에 맞춰, 관람객에게 암샘김밥의 대표 메뉴를 제공하느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피자마루, 사랑의 피자과 마술공연으로 소방대원 위로

피자 전문점 피자마루(대표 이영준)가 인천 소방서 소방관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격려 공연을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인천 소방본부에서 열렸으며 소방대원과 가족들까지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는 피자마루 모델인 일루서니스트 이은결과 피자마루의 공식 서포터즈인 대학생 봉사활동단이 함께 참여했으며, 마술공연과

함께 피자 케이터링이 제공됐다. 피자마루 관계자는 "소방대원들은 직업 특성상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데 12월부터 3월은 날씨가 건조해 특히나 바쁘고 힘든 때"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가족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자 했다"고 행사를 주최한 계기를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2019 아이오페 스킨위크' 진행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의 고기능성 브랜드 아이오페가 지난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아모레퍼시픽 본사 1층에서 피부미래연구 콘셉트의 '아이오페 스킨위크'를 진행했다. 지난 2017년 이래로 매년 개최되어 올해 세 번째 열린 이번 행사는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나아가 미래의 피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피부 빅데이터에 기반해 피부 환경과 고민을 분석하

고 연구하는 아이오페 연구원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도록 서재와 비밀 실험실 두 가지 공간으로 구성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스킨위크에 참여한 방문객 중 보다 정밀한 피부 측정과 피부 고민에 맞는 카운셀링을 원한다면 명동에 위치한 아이오페랩에서 90분 동안 진행되는 '전문가 피부 측정 서비스'를 미리 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피브릿지협동조합, 2019 대한민국마케팅대상 공유가치경영 대상 수상

해피브릿지협동조합(대표 이효성)이 지난 3월 29일 '2019 제7회 대한민국마케팅대상' 단체부문에서 '공유가치경영 대상'을 수상했다. 해피브릿지협동조합은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국수나무, 도코스 테이크 등 외식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문제해결에 앞장서면서 사회 발전과 경제적 이익 창출에 공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다양한 상생경영을 통해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해피브릿지협동조합은 현재 면&돈까스 전문 브랜드 국수나무 500여개 가맹점을 비롯하여 도코스테이크 40여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대문구와 서울시와 함께 청년외식창업 협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바빈스커피, 올 여름 수박과 복숭아로 신메뉴 출시예정

스페셜티 커피 전문브랜드 바빈스커피(대표 백호근)가 여름철을 겨냥한 시즌메뉴를 출시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메뉴로는 진짜 과즙이 살아있는 수박과 복숭아가 주 재료로 활용되며,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스무디 및 과일주스로 복숭아스무디, 자두스무디, 수박주스, 수박빙수 등의 슈퍼킹사이즈가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된다.

바빈스커피는 최고의 커피를 추구하는 영국식 커피하우스의 컨셉이 더해져 커피전문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창업 바빈스커피 메뉴 개발실 관계자는 "다양한 각도에서 트렌드 분석을 통해 히트가 예상되는 신메뉴를 출시함으로써 가맹점 매출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바두마리치킨, 사이드 신메뉴 ‘JMT칩쌀치즈봉’ 출시

티바두마리치킨(대표 유상부)에서 사이드 메뉴인 'JMT칩쌀치즈봉'을 새롭게 선보이며 메뉴 강화에 나섰다. 이번 신제품은 체다치즈와 고다치즈가 더해져 치즈의 풍미를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티바두마리치킨은 기존 황금감자, 국물떡볶이, 치즈스틱, 치킨텐더 등의 사이드 메뉴가 인기를 끌면서 매출 효과 노릇

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국물떡볶이의 경우 블로그와 SNS상에서 '떡볶이 맛집'으로 통할 정도로 전체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티바두마리치킨 관계자는 "치킨 메뉴뿐 아니라 사이드 메뉴 개발에도 소비자 반응과 트렌드 분석을 통해 연구하고 있다"라며, "사이드 메뉴의 다양화로 고객에게 먹거리의 즐거움을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안식당, 서해 자연산 꽃게로 만든 ‘꽃게살비빔밥’ 출시

(주)디딤(대표 이범택)이 운영하는 '연안식당'에서 지난 5월 신메뉴 4종을 출시했다. 연안식당이 출시한 이번 신메뉴는 꽃게를 활용한 메뉴로 꽃게살비빔밥, 꽃게무침, 꽃게떡배기, 꽃게탕 등이 해당된다. 연안식당은 테스트 판매 기간 때부터 꽃게 신메뉴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들이 해당 신메뉴들은 모두 서해 자연산으로만 조리하여 꽃게 특유의 고소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꽃게살비빔밥'은 연안식당의 테스트 판매기간 중 가장 호응을 많이 받은 메뉴로 대표 메뉴 '꼬막비빔밥'의 뒤를 이을 메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연안식당은 테스트 판매 기간 때부터 꽃게 신메뉴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들이 SNS를 통해 계속 나왔던 만큼 정식 출시된 이후 새로운 대표메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 소진세 신임 대표이사 회장 선임

교촌에프앤비가 신임 대표이사 회장으로 소진세 前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 을 선임했다. 소 신임 회장은 40여 년간 유통업에 종사한 '유통의 산증인'으로 롯데백화점 상품본부장과 마케팅본부장·롯데미도파 대표이사·롯데슈퍼 대표·코리아세븐 대표이사·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 단장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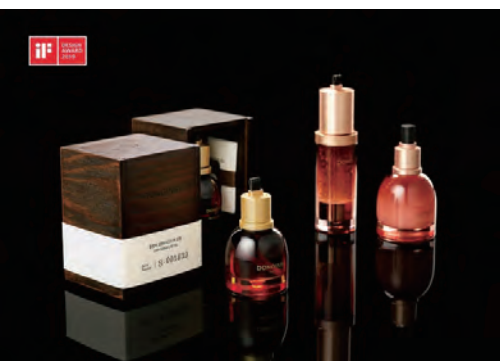
지난 4월22일 교촌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 회장은 "교촌이 가진 상생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글로벌 교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시스템 확립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 △상생의 가치 발전 등을 향후 경영 방향으로 내세웠다.



'양키캔들 수입사' 아로마무역, 중국 코스메틱 시장 진출

양키캔들 한국공식수입원 아로마무역(대표 임미숙)이 지난 5월 10일 중국 최대 유통기업인 따상그룹(大商)과 코스메틱 브랜드 '밀렌(MIELREINE)' 중국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밀렌 브랜드의 제품이 생산되기 전 샘플 제조 단계에서부터 논의가 이뤄졌으며, 중국 내 시판전 총판계약이 완료된 최초의 사례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영건 아로마무역 코스메틱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총판 계약은 단순 계약을 넘어 양사가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로마무역은 중국 소비자층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따상그룹은 유통 자원을 통해 밀렌이 빠른 시간 내에 중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GC인삼공사 '동인비', 2019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KGC인삼공사(대표 김재수)의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 '동인비'가 '2019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패키지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1953년 시작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공신력 있는 디자인 상 중 하나로 손꼽히며, 매년 최고의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 iF 디자인 상을 수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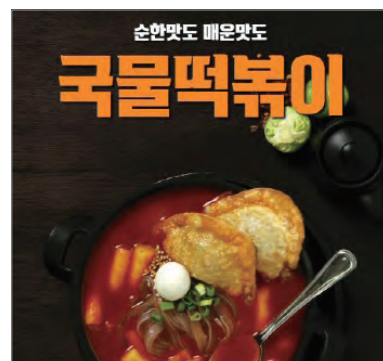
'동인비 1899 라인'은 한국의 전통 향아리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한 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디자인 컨셉으로 제품의 특이한 홍삼오일의 진귀함을 잘 살렸다는 점과 가족·메탈이 조합된 도장 형태의 캡과 나무패키지를 통해 '1899 시그니처 오일'만의 장인정신을 잘 조화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남다른감자탕 미아사거리역점, 개점 수익금 기부

한식 프랜차이즈 남다른감자탕(의장 이정열) 미아사거리역점(점주 신봉환)이 지난 4월 19일, 송중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개점 수익금을 전달했다. 남다른감자탕 미아사거리역점은 개점 수익금 중 일부인 150만원을 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기부했으며, 이 기부금은 송중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신봉환 점주는 "개점 수익금을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수익금이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했다.



조스푸드, 매운맛·순한맛 골라 먹는 국물떡볶이 출시

조스푸드(대표 나상균)가 고객의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국물떡볶이를 매운맛과 순한맛 두 가지를 새롭게 출시했다. 조스떡볶이에서 새롭게 출시된 2종의 국물떡볶이는 기존 조스떡볶이의 매콤 달콤한 소스에 후추와 카레향을 가미해 국물의 감칠맛을 더욱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탕글탱글한 밀떡과 어묵, 쫄깃한 중국 당면, 바삭한 납작 만두가 어우러져

다양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으며, 메추리알과 쪽파, 참깨 등의 고명으로 맛을 더했다. 조스떡볶이 관계자는 "기존의 떡볶이 메뉴와는 다른 형태와 맛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국물떡볶이를 새롭게 선보였다"며, "조스떡볶이에 이어 제2의 인기 메뉴로 등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호한방삼계탕,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제작지원

지호한방삼계탕(대표 이영채)이 MBC 월화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의 제작을 지원한다.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을 제작 지원하는 지호한방삼계탕은 가맹점 오픈 후 각 가맹점의 필요한 개별 마케팅비용의 50% 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드라마 제작 지원 역시 일절 가맹점주의 부담 없이 전액 본사 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채 대표는 "사회적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한다는 드라마의 내용에 많은 공감을 했다. 올바른 프랜차이즈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지호한방삼계탕의 사업의 방향과 닮았기에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자원을 결정했다. 이번 제작자원을 계기로 더욱 착한 프랜차이즈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셀렉토커피, ‘오키나와 흑당 버블티’ 4종 출시

커피 전문 카페 프랜차이즈 셀렉토커피 (대표 황규연)에서 신메뉴 ‘오키나와 흑당 버블티’ 4종을 선보였다. 이번 셀렉토커피의 신메뉴 ‘오키나와 흑당 버블티’ 라인은 오키나와 흑당만의 달콤함과 풍미, 영양을 음료 한 잔으로 물씬 느낄 수 있다. 신메뉴 구성은 ‘오키흑당 밀크티’, ‘오키흑당 녹차라떼’, ‘오키흑당 카페라떼’, ‘오키흑당 딸기 밀크티’ 등

총 4종으로,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재미도 선사한다. 무엇보다 최근 인기를 끈 흑설탕 버블티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지금까지 이런 흑당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차별화된 경쟁력을 자랑한다. 타 브랜드 흑설탕 버블티와는 달리 셀렉토커피만의 특색을 갖춘 ‘오키나와 흑당’이 건강함까지 더해주기 때문이다.



피자알볼로, ‘피자카’ 활용 가맹점 마케팅행사 지원

수제피자 전문브랜드 피자알볼로(대표 이재욱)가 전국 가맹점의 홍보지원을 위해 ‘피자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적의 홍보는 고객들에게 직접 시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원칙 아래, 전국 희망 가맹점들의 홍보지원을 2년 연속 시행해 오고 있다. 2018년도 약 50개 매장의 지역 내 주민들에게 피자카 시식행사를 지원

하였으며, 올해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광주, 논산, 창원, 천안 등 9개 전국 매장의 상권 내 주민들에게 단호박피자, 고구마피자, 불고기피자, 신메뉴 부산피자 등 점주와 희망하는 메뉴를 협의하여 시식행사로서 최소 700명에서 최대 1,200명까지 시식할 수 있도록 지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푸라닭치킨, FC서울과 파트너십 체결

푸라닭치킨(대표 장성식)과 FC서울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지난 5월 11일 FC서울과 대구FC와의 경기부터 ‘푸라닭치킨존’을 새롭게 운영했다. 푸라닭치킨존에서는 푸라닭치킨의 베스트 메뉴인 ‘블랙알리오’를 제공한다. FC서울은 치킨존 운영을 통해 팬들에게 사랑받아 왔으며, 푸라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경기 하프타임 다리타기 이벤트, SNS 프로모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포츠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푸라닭치킨은 굵고 튀기는 오븐후라이드 방식의 치킨 브랜드로 맛은 기본, 특별한 포장패키지와 인테리어로 보는 맛까지 더해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차별화에 성공했다.



60계치킨 춘천강대온의점, '사랑의 치킨나눔' 봉사

(주)장스푸드(대표 장조웅)의 60계치킨 춘천강대온의점(점주 김순이)에서 지역사회 복지관을 통해 복지관과 노인정을 방문해 ‘사랑의 치킨나눔’ 봉사를 가졌다. 김순이 점주는 건강하게 조리한 치킨 10마리를 지역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마음을 담은 교감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60계치킨의 사회공헌

캠페인 ‘우리동네 사랑나눔’의 일환으로 진행 됐으며, 건강한 치킨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 및 아이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행복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60계치킨은 각 매장에서 ‘우리동네 사랑나눔’을 진행 할 때마다 원재료 값을 매장에 지원하고 있어 매장에서 부담 없이 지역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못된고양이, ‘아마존’ 입점으로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

(주)엔켓의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못된고양이(대표 양진호)가 미국 최대 인터넷 종합 쇼핑몰 ‘아마존’에 입점하며 글로벌 온라인 시장에 진출했다. 못된고양이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국, 필리핀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적으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귀걸이 상품군 중 ‘한줄큐빅링’, ‘두줄큐빅링’, ‘범벅’, ‘점토볼’ 등 4개 카테고리부터 판매를 진행한다. 이후 액세서리, 집화 등 순차적으로 상품군을 다각화하는 방식으로 (주)엔켓이라는 기업의 인지도를 전 세계적으로 넓히며 해외 고객들에게 더욱 인정받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비가푸드, 가정의 달 기념 나눔잔치 개최

(주)이비가푸드(대표 김영철)와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는 지난 5월 4일 대전 이비가잼뽕 본점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 2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주)이비가푸드 임직원, 연합회 임원진, 누리보듬가족봉사단, 민족사관 청소년회복센터, 아동양육시설 자혜원 청소년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후원금 전달과 음식 제공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 김창섭 회장은 “올해로 다섯 번째 맞는 가정의 달 맞이 나눔잔치에 함께해주신 김영철 이비가푸드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주씨, 제철 과일로 라인업 강화 ‘2019 수박주스’ 선배

주씨(대표 윤석제)가 2019년 수박주스 판매를 개시, 제철 과일로 라인업 강화에 나선다. 주씨에서 올해 출시하는 수박주스의 테마는 ‘W 파티 : 2019 수박잔치’다. 먼저 작년 한 해 많은 사랑을 받은 수박을 통해 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여기에 1980, 1990년대 홍콩영화의 대표 배우인 주윤발을 오마주한 뉴트로 감성을 살린 화제 메뉴 ‘밀키수박’을 선보인다. ‘밀키수박’은 밀크 탄산음료와 수박, 우유로 맛을 내고, 수박을 포함 3가지 과일이 들어가 식감까지 살린 화제 음료 신제품으로,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재미있고 간편하게 수박 과일 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메뉴다.



오피스디포, 우수가맹점에 4박 6일 하이난 여행 포상

문구·사무용품 전문 오피스디포(대표 송지헌)가 8곳의 2018년 ‘챔피언 서클’ 수상 가맹점을 선정, 부부동반 중국 하이난 여행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챔피언 서클’은 지난 200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업계 유일의 행사로, 우수한 매입과 매출 성장률, 높은 매입실적을

보인 지점을 선정한다. 이번 행사는 4월13~18일까지 4박6일간 중국 하이난 지역의 최고급 호텔 만찬과 럭셔리 요트투어를 포함, 행사 참가자들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 2018년 ‘챔피언 서클’ 수상 가맹점 : 송도 외(아이티센터, 트리플스트리트), 여수, 화성동부, 부산동래 외(부산 남산), 양평, 성동 외(성북, 성수), 파주, 춘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란?



write 이금구

Profile

노무법인 C&B 대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1991년_제3회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2년_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고문

2015년_(사)한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고문

2016년_GS25, 프랜차이즈 노무관리 시스템 도입

T : 1544-8323 / E : www.franhr.com

1. 근로감독이란?

사업장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등을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에는 정기감독과 수시감독, 특별감독이 있다.

정기감독이란 근로조건이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가 일정기준에 따라 선정한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수시감독은 정기감독 계획수립 이후 법령의 제·개정, 사회적 요구 등으로 정기감독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실시하는 감독을 의미한다. 한편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이나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즉,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사업장에서의 근로감독의 중요성

사업장 근로감독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기조가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불법파견 등을 근절하고 사업장 내 경영활동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산업안전관련 점검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는 노동계에서도 사업장 내 법 위반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은 단순히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 위반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도 수행한다. 즉, 사업장 내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이를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근로감독 현황

2018년도 근로감독은 2만6082개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되었으며, 이 중 2만1711개 사업장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2019년 4월 현재 2370개 사업장 중에서 1832개 사업장이 적발되었다.

4. 근로감독 대비 점검 사항

① **근로조건 서면 명시(근기법 제17조 제1항과 2항, 기간제법 제17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락된 것 없이 명시했는지 여부다. 위반이 발견되면 7일의 시정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누락된 항목에 대해 과태료가 병과된다.

② **임금체불(근기법 제36조, 제34조, 제56조)**
퇴직자, 재직자의 임금이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제대로 지급됐는지, 휴업이 발생했다면 휴업수당은 지급이 되었는지,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했다면 가산수당은 지급률에 맞게 지급이 됐는지를 확인한다.

③ **퇴직금 체불(근퇴법 제9조)**
정기 지급일 또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었는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있었는지도 확인대상이다. 평균임금 산정은 제대로 됐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납입은 제대로 했는지 등도 확인한다.

④ **근로시간(근기법 제50조, 제53조, 제53조 등)**
300인 이상 회사는 당장 주52시간 준수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한다. 장시간 근로가 관행화된 회사는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⑤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복리후생금품(식대 등)과 상여금 등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논란을 일으킨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208.57시간으로 정리됐다.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구성항목 별 최저임금 산입유무 등을 확인한다.

⑥ **휴일(근기법 제55조)**
주휴일이 부여됐는지, 휴일에 근로한 경우 수당 계산은 제대로 됐는지, 휴일 대체의 경우 절차는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⑦ **휴가(근기법 제57조, 60조, 61조, 62조)**
연차 유급휴가 부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특히 1년 미만자에 대해), 미사용수당은 지급되었는지,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는 했는지, 사용촉진은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⑧ **차별적 처우 금지(기간제법 제8조, 파견법 제21조)**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유무, 참석자, 교육자료 비치 등을 확인한다. 30인 이상 회사의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유무, 회의록 등을 확인한다. **KFN**

출처: 고용노동부 e-현장 행정실, 중앙경제사

2019년 예비창업자의 창업 환경과 가맹점 창업에 대한 의식조사

이 글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동향과 준비 과정, 프랜차이즈 관련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1월과 4월에 진행된 창업박람회 참가객 3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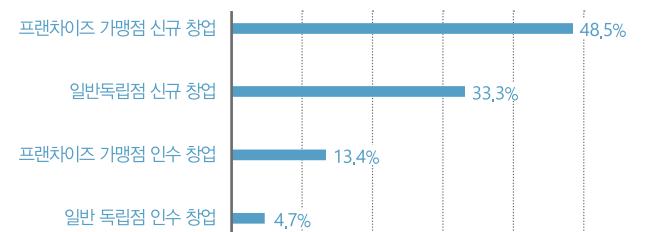
write 장재남

Profile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
CFE, 경영학박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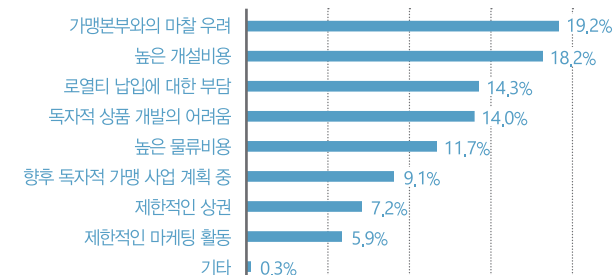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동기는 다양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창업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이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생계유지' 22.3%, '조기퇴직의 불안함' 12.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의 희망 점포 형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규 창업'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일반 독립점 신규 창업'(33.3%),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수 창업'(1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창업 희망 점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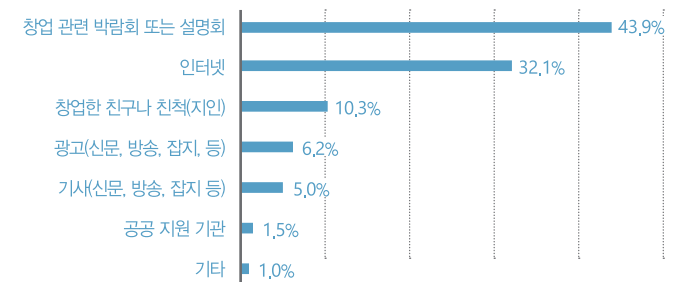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창업하려는 이유는 '창업 및 운영의 편리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창업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와의 마찰 우려'가 19.2%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이어 '높은 개설투자'(18.2%), '로열티 납입에 대한 부담'(14.5%)이 뒤를 차지했다.

표 2.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창업하지 않으려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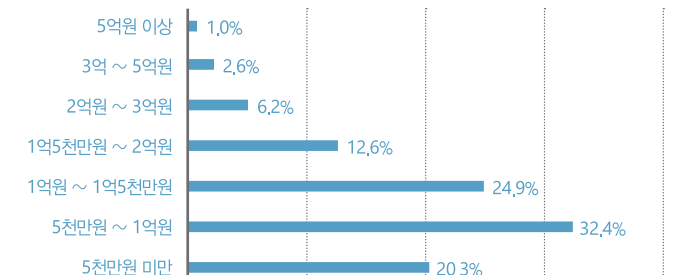
특히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희망하는 업종은 외식업이 48.0%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 (28.5%)과 도소매업(23.4%)이 뒤를 이었다. 외식업 업종별로는 한식 창업 희망자가 17.8%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커피 외 음료(12.9%), 커피(12.0%), 분식(11.5%) 순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 중에서는 편의점 창업희망자가 21.1%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교육관련 창업희망자가 17.6%로 가장 많았다.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정보 수집경로는 '창업 관련 박람회 또는 설명회'가 43.9%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32.1%)이 뒤를 이었다.

표 3. 창업정보 수집경로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정보 탐색 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로는 '업종 트렌드'라고 응답한 비율이 40.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유망 아이템'(29.1%), 업종 수익률(17.1%) 순으로 나타났다.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준비기간은 '6개월~1년'이라고 답한 비율이 30.7%로 가장 많았다. 총 보유자금은 '5천만~1억원'이 28.4%로 가장 많았으며, 최대 투자금액 역시 '5천만~1억원'이 32.4%로 가장 많았다.

표 4. 창업을 위한 최대 투자금



상속세 절세팁 7가지

요즘 들어 프랜차이즈 모임에서 상속, 증여에 관해 질문하시는 대표님들이 많다. 질문에 대부분은 좀 더 미리 준비하고 사전지식이 있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물려받는 게 어디냐며 위로해 드리지만 사실은 사전 준비에 따라 수천에서 수억까지 차이나니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전부는 아니지만 간단한 절세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write 노정민

Profile

現 세무법인 ROH&PARTNERS 대표이사
2006년,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장상 표창장 수상
現 한국중고육상경기연맹 감사
前 프랜차이즈시스템연구소 강의 및 감사 역임
前 서초구청 조세상담위원
前 성균관대 FCEO과정 전임강사
前 한국세무사회 감리위원

1. 상속세 발생 전에 미리 증여하자

10년 동안의 증여합산은 들어봤을 것이다. 상속세 계산 때도 10년 이내 증여에 대해 합산을 하여 다시 세액계산을 하고 있다. 절세의 기본은 누진세율과 기본공제액의 활용임을 잊지 말자.

증여공제액(10년간 누적공제)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	6억	5천만원 수증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000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000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6천
30억 초과	50%	4억6천

2. 미리 증여 시 현금 vs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현재 미리 증여를 한다면 현금을 증여해야하나 부동산을 증여해야하나 고민일 수 있다.

보편적으로 현재 10년 전 부동산의 가치증가와 현금의 가치하락을 따져보자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증여 시 아파트와 같이 거래되는 시가가 있다면 현금과 차이가 없지만 시가가 없는 건물 등의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시가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건물을 미리 증여 시에는 향후 수증자가 월세 등의 수익

을 얻을 수 있음에 주목하자.

3.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임대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임대자 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원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8억원에 월세 3백만 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8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2억원에 월세 천만원을 받았다면 2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주의점은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증여된 걸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4.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연로하신 어머님을 제외하고 자녀들만이 상속 받으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절세차원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한다면 세금을 내기위해 건물 등을 급매해야 하는 최악을 상황을 면할지도 모른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42억원이고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먼저 어머니에게는 재산을 한 톨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42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자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32억 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11억 4천만원이 나온다.

다음에 어머니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법정상속지분은 어머니가 3/7 자녀가 각각 2/7씩이므로 어머니가 18억원, 자녀가 각각 12억 원씩 상속받게 된다. 이런 경우 42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8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9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6억원이 된다. 따라서 모친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 5억4천만원이나 상속세가 절감된다.

5.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 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9년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을 포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중에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 포함한다.

라.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 받은 주택일 것

6. 병원비는 사망 후 납부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병에 피상속인이 걸린 경우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자식된 도리로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절세 차원에서는 이는 오히려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 피상속재산에서 부담시 재산감소로 인해 상속세가 줄기 때문이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재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들아가시고 난 후에 내던가 그 전에 꼭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

7.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 등은 시가보다 낮게 과세 시 예금 등으로 과세되는 것과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예금, 적금 등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에 대해 2억원 한도로 max(순금융자산 * 20% , 2천만원)을 공제해준다. **[KFT]**



COLUMN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프랜차이즈는 기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write 이경희

Profile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부자비즈 의장
저서 CEO의 탄생
이경희 소장의 2020창업트렌드

우리 회사의 창업교육생인 A씨는 창업에 대한 열망이 컸다. 회사를 그만둔 후 남편의 퇴직도 대비할 겸 오래전에 분양받아뒀던 점포에서 작은 분식점을 창업한 사업자다.

창업 전 여러 번의 상담을 거쳐서 업종과 브랜드를 결정했다. 나는 그 회사의 개설 및 운영담당자를 소개받아 A씨를 잘 지도해달라고 부탁했다. 가맹본부에서는 A씨에게 가맹비 일부를 할인해주고 오픈시 마케팅에 필요한 초도물량도 지원해줬다.

자기 점포에서 창업한 A씨는 매출이 기대한 것보다 낮았지만 열심히 경영했다.

창업 전에는 수도 없이 전화하던 사람들도 오픈 후에는 전화가 뜸해진다. 몸이 힘들고 피곤해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올 때는 속상한 일이 생긴 경우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해야

밤늦게 전화한 A씨는 많이 침울해 있었다. 이유를 묻자 담당 슈퍼바이저에게 화가 나 있었다. 가맹점주가 연구원 출신이고, 나이기도 많은데 담당 SV의 말투가 명령조라는 것이다. 그날 아침 자녀문제도 남편과도 말다툼이 있었고, 어린 자녀는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슈퍼바이저가 기분 나쁜 말투로 다른 가맹점주를 빋대 A씨를 훈계하자,

사업하기 싫을 만큼 기분이 상한 것이다.

나는 A씨가 힘든 것만큼 슈퍼바이저 업무도 힘들다는 점, 그들도 업무 난이도가 높아서 가맹점 사장님들 기분을 다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시켰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사에서 요청한 것을 A씨가 실행하지 못했다. 나는 “분명히 그 슈퍼바이저도 회사의 윗사람에게 그 일로 혼이 났을 거라며, 사업하다보면 크고 작은 장애물이 늘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감정에 굴복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A씨를 달랬다. 다행히 A씨는 내 말을 이해했고, 지금까지 사업을 잘 하고 있다.

가맹본부에 대한 불신은 폐업으로 연결

반대의 경우도 있다. B씨는 창업한 지 1년도 안돼 사업을 접었다. 개설지금만 2억원 가까이 들었는데, B씨는 권리금 3000만원에 그 점포를 넘겼다.

B씨는 사업 경험이 없어 운영관리, 조직관리 등 모든 걸 힘들어했다. 마침 B씨가 창업할 무렵 가맹본사는 내부 조직혁신이 한창이었다. 그러다 보니 가맹점 관리에 신경을 제대로 못쓰던 상태였다. 가맹본사의 운영 규칙도 너무 엄격해서 오픈 당시 점포 설비가 입고될 때부터 점포에서 필요한 물건보다 과다하게 입고해 가맹점주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B씨는 부유한 창업자였지만 주방 공간도 비좁은데 불필요하게 많은 물건을

받다보니 처음부터 가맹본부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

나는 B씨에게 해당 가맹본부의 CEO가 훌륭한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B씨가 가맹본사 사장을 만날 기회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즈음에 가맹본사는 핵심 제품의 거래처를 바꾸었다. 공급되는 제품 품질이 흔들렸고, 고객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던 B씨는 가맹본부의 핵심 공급품의 품질이 흔들리는 게 매우 속상해 여러 번 슈퍼바이저에게 항의를 했다.

‘엮힌 데 댄친 격’ 복합적인 문제가 사업의욕을 잃게 만든다

나는 B씨의 전화를 받고 “거래처를 바꾸다보면 일시적으로 품질이 흔들릴 수 있다. 가맹본사가 열심히 하는 회사이니 조금 믿고 기다려봐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가맹본사가 가맹점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곳이니 조금 기다리면 품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B씨는 내 말을 듣고 수긍을 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우나 고우나 오픈초기부터 B씨가 대화를 나누며 정을 붙였던 슈퍼바이저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인사를 하러 왔다. 나는 “가맹본사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이직이 있을 수 있고, 슈퍼바이저들은 일이 힘들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직이 더 심한 편”이라고 말해줬지만 매장 직원들의 이직, 본인의 건강문제까지 겹쳐 B씨는 사업을 그만하기도 마음을 굳히고 말았다.

B씨는 장사가 안돼서 사업을 접은 게 아니다. 수익이 월등히 좋은 편이 아닌데다가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업의욕을 잃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쳤다. 가맹본사의 윗사람이 B씨에게 희망을 주고 충분히 대화를 나눴더라면 B씨가 2억 가까운 돈을 손해 보면서 사업을 접지 않았을 것이다. B씨가 택한 업종은 시간이 흐를수록 매출이 오르는 특성이 있어 1년 2년만 더 참고 버텼더라면 점포 경영도 익숙해질 것이고 매출도 더 상승했을 것이다.

좋은 식자재 못지않게 가맹점주의 기업가 정신 키워주는 소프트파워 절실

현장에서 가맹점주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가맹본사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하면 가맹점 매출도 향상시키고 가맹점주들의 마음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을 것이다. 관리 소홀 혹은 가맹점주의 기업가 정신을 키워주지 못해 어렵게 개설한 매장들이 문을 닫도록 방치하는 경우는 너무 많다.

모든 가맹본사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일이 가맹점 개설이다. 그런데 상당수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점포 개설은 많이 했는데 폐점한 점포의 비율이 전체 개설점포의 20~30%에서, 많게는 절반이 넘는 경우도 있다. 힘들게 가맹점을 확장해도 폐점하는 가맹점포가 많다면 사업성장은 불가능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장을 키우는 사업이다. 그들에게 기업가정신을 불어넣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소프트파워는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프랜차이즈 CEO들이 인식하길 바란다. **KFM**

프랜차이즈 업계 전문경영인 영입 열풍

오너리스크 없애고 선진 경영… IPO는 ‘덤’

교촌치킨이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을 선임 회장으로 영입하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오너리스크’를 없애고 시스템 경영 안착, 증시 직상장, 해외 시장 공략 등 산업 선진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write 노승욱 특임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최근 잇따라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있다. 사진은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 출신의 소진세 교촌치킨 선임 회장 취임식 모습. <교촌치킨 제공>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4월 22일 신임 대표이사 회장으로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소 신임회장은 롯데백화점 상품본부장과 마케팅본부장을 비롯해 롯데미도파, 롯데슈퍼, 코리아세븐 등 주요 계열사 대표를 거쳐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등을 역임한 롯데맨이다. 40여 년간 유통업에 종사해 ‘유통의 산증인’으로도 불린다.

교촌에프앤비는 소 회장 취임에 대해 창업주인 권원강 전 교촌에프앤비 회장의 경영혁신 의지가 크게 반영된 인사라고 설명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3월 창립 28주년 기념일 행사에서 퇴임을 밝히며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권 회장은 “교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에는 보다 투명하고 전문화된 경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

단했다”고 퇴임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권원강 전 회장의 딸 권유진 전 교촌에프앤비 상무도 지난해 퇴사, 오너 일가의 경영 참여가 일단락 됐다. 전문경영인 영입이 예고된 인사이기는 하지만, 소 회장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거물’ 인사여서 신선한 충격이란 평가다.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도미노

▷교촌·놀부·아놀자… 전문성 강조

교촌치킨만큼은 아니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중량감 있는 전문경영인 영입이 잇따르고 있다.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MP그룹(미스터피자)은 지난해 4월 CJ푸드빌 부사장을 역임했던 김흥연 대표를 영입했다. 정우현 전 회장은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 않고 김 대표에게 경영 전반을 일임한 것으로 알려진다.

bhc치킨은 전문경영인이 아예 회사를 인수한 사례다. BBQ로부터 bhc치킨을 사들인 사모펀드 로하티그룹이 고용했던 박현종 대표가 전문경영인으로서 5년간 회사를 운영한 끝에 지난해 11월 경영자매수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했다. 그는 회장이 된 뒤 같은 삼성전자 출신의 임금옥 씨를 bhc치킨 대표로 영입, 전문경영인 체제를 이어갔다. 중소형 호텔 프랜차이즈 아놀자는 이수진 창업주가 총괄대표를 맡고, 온라인 사업부는 맥킨지 컨설턴트 출신 김중윤 대표에게, 오프라인사업부는 김진정 전 테슬라코리아 대표에게 일임했다. 남다른감자탕, 이비가푸드 등도 최근 놀부 출신 전문경영인을 영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프랜차이즈 창업기와 성장기에는 창업주인 오너가 카리스마적 경영을 하고, 성숙기에 접어들며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교적 신생 프랜차이즈에서도 초기부터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전했다.

전문경영인 체제의 장점은 여러 가지다.

일단 창업주의 제왕적·독단적 경영으로 인한 ‘오너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 보다 큰 기업을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 경영 기법을 도입할 수 있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상향식 의사결정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과거에는 프랜차이즈 설립 초기에 창업한 점주들이 오너와의 친분을 이용해 담당 직원과 원칙을 무시하고 ‘고공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매장을 이전할 때 인테리어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해를 요구하는 식이었다. 요즘은 이런 민원이 거의 통하지 않게 됐다. 직원들의 의견도 경영에 더 반영되니 직원들이 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귀띔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전문경영인 영입 열풍이 부는 배경은 뭘까.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세대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70대에 접어들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세대 교체요구가 불거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뗀 정우현 전 회장, 권원강 전 회장을 비롯

해 1990년대에 창업한 1세대 프랜차이즈 상당수는 오너 나이가 70세 안팎이다. 40~50대에 불굴의 기업가정신으로 창업해 어엿한 중견기업을 일궜지만 20~30년이 지나 체력이 떨어진 데다 브랜드가 성숙기에 접어들며 회사에 필요한 경영 역량도 달라졌다. 업계 관계자는 “70세가 넘은 한 프랜차이즈 오너는 그간 기업의 대소사를 도맡으며 왕성한 경영활동을 벌였지만 최근 체력이 달린다며 암암리에 전문경영인을 물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둘째, 사모펀드의 프랜차이즈 인수가 잇따르며 자연스럽게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뀌게 됐다. bhc치킨, 카페베네, 놀부 등이 대표 사례다.

셋째, 기업공개(IPO)를 위한 사전 정치작업일 수 있다. 교촌치킨의 경우 권원강 전 회장이 2020년까지 상장을 목표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육촌 갑질’ 사태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상장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선장을 바꿔 분위기를 쇄신하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를 영입해 ‘CEO 프리미엄’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프랜차이즈는 직 상장한 사례가 거의 없다. 스팍(SPAC) 인수를 통한 우회상장이 대부분이고 그나마도 몇 안 된다. 이는 오너의 경영 지배력이 너무 강해 오너 리스크 문제가 있는 데다, 상장심사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기대보다 낮게 책정되는데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경영인만 잘 영입해도 후광 효과로 인해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상장 업무가 수월해질 수 있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전문경영인 리스크도 상존

▷놀부, 단기성과 급급하다 실패

물론 전문경영인 체제라고 해서 오너 경영보다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란 보장은 없다. 전문경영인이 회사나 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단기성기에 집착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놀부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놀부는 사모펀드 모건스탠리PE가 지난 2011년 창업주인 김순진 전 놀부 대표로부터 지분 100%를 인수한 후 그간 유민중(2011년), 김준영(2012~2015년), 김영철(2016년), 이만재(2017년) 전 대표를 거쳐 현재 안세진 대표에 이르기까지 8년간 5명의 전문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겼다. 이들 중에는 오비맥주와 해태음료 사장 등을 역임한 외부 인사도 있었고, 놀부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내부 승진 인사도 있었다. 안 대표는 유통업 근무 경력이 거의 없는 IT 업계 인사다. 이처럼 다양한 인사 실험에도 이들은 놀부 재매각은커녕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데도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놀부는 사모펀드가 재매각에 급급해 전문경영인에게 단기간에 성과를 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 회사의 핵심 역량인 놀부보쌈과 부대찌개 브랜드를 강화하기보다는 신규 브랜드를 키워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했지만 결국 기존 브랜드와 신규 브랜드 모두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잇따른 전문경영인 영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경영 능력이 입증된 우수 전문경영인만 잘 영입하면 오너 리스크 해소 등 단점보다 장점이 많을 것이란 기대에서도.

임영태 사무총장은 “오너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IT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뤄진 일이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가 기업으로 성장하고 나면 그에 따라 경영 기법과 역량도 달라져야 한다. 이제 교촌치킨과 같은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이 대세가 될 것이다. IT 업계에서 그랬듯 영업은 전문경영인이 일임하고, 회계 등 자금 관련 업무만 오너 관련 인사가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투명경영, 정도경영을 추구하는 프랜차이즈가 앞으로는 일반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77]



박현종 bhc치킨 회장(사진 왼쪽)은 bhc를 인수한 사모펀드 로하티그룹이 고용한 전문경영인이었지만 회사를 인수하며 오너가 됐다. 그는 이어 같은 삼성전자 출신 임금옥 씨(사진 오른쪽)를 bhc치킨 대표로 영입했다. <bhc치킨 제공>

전문경영인을 영입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전문경영인	경력
미스터피자	김흥연	CJ푸드빌 부사장
교촌치킨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
bhc치킨	박현종	삼성전자, BBQ글로벌 대표
bhc치킨	임금옥	삼성전자, 넥센타이어 전무
아놀자	김중윤	맥킨지 컨설턴트
	김진정	테슬라코리아 대표
남다른감자탕	이만재	놀부 대표



베트남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 기업들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과 구매력 증가, 그리고 큰 소비자시장으로 인해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체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인 곳이 되었다. 산업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203개의 브랜드가 베트남에 해외 프랜차이즈로 등록되어 있다. 해외 프랜차이즈의 대부분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한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 홍콩, 대만, 캐나다, 필리핀 등이다.



write 유상목

Profile

現 가천대 경영대학원 글로벌프랜차이즈 겸임교수
現 한국무역협회 수출현장MC위원
現 FranOn Corporation 대표
現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글로벌전문위원
前 김가네 기획실장
前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
前 세계프랜차이즈총회 서울대회 사무총장

강의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 글로벌프랜차이즈
KOTRA 아카데미 - 해외진출 국가별 진출전략
IFS 프랜차이즈 서울창업박람회

식품 및 음료 사업은 프랜차이즈 잠재력이 가장 높은 부문 중 하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자료는 지난 기간 프랜차이즈 시장의 활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브랜드가 시장에서 운영되어 왔지만, 이들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외국 브랜드로부터 가맹사업 총판권을 받은 후 2차 가맹사업운영(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재판매)도 매우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어, 가맹점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World Franchise Associated의 설립자 겸 매니저인 응우옌 피 반 Retail & Franchise Asia 회장은 글로벌 시장 확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선정된 12개 시장 중에서 베트남이 8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프랜차이즈 잠재력이 큰 분야는 식음료, 교육, 보건 및 영양, 비즈니스 서비스, 숙박업, 패션, 미용 및 스킨케어, 엔터테인먼트, 아동 서비스, 편의점"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 르당 도안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기업이 파트너로부터의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자본을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수수료 수익으로 인한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본과 인적자원을 동원하는 매우 현명한 방법이다. 이 모델은 가맹점에 큰 이익을 가져줄 뿐만 아니라, 가맹점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프랜차이즈 방식에 의해서, 또 대형 브랜드의 브랜드 파워 덕분에 시장에서 제품이 활발하게 소비되고 소비자에게도 잘 알려진다.

이런 사업들은 브랜드를 발전시키고 광고비, 판촉비 등의 비용을 절감시켜준다. 고성장 전망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해외 및 동남아시아의 지역의 더 많은 브랜드들이 베트남의 소매 및 프랜차이즈 분야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리드 트레이덱스의 수티삭 월라난에 따르면, 베트남은 대규모 소비자 기반 즉, 급속한 소득 증가, 잘 교육받은 젊은 전문가 세대의 성장 등 프랜차이즈 발전을 위한 잠재적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몇 년 안에

국내외 브랜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두 배로 늘리는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준다.

반 회장은 또 "해외 브랜드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추세는 앞으로 3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지역의 브랜드들도 해외 브랜드들과 같은 트렌드를 보여준다. "베트남은 해외 브랜드,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브랜드들의 목적이 될 것이다. 동시에 국내 브랜드들은 세계 시장에서 그들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반 회장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문 프랜차이즈 시장이 없었다. 1990년대에 KFC, 롯데리아, 줄리비 같은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소개되면서 프랜차이즈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과 같은 지역 국가들에서 시작되었다.

반 회장은 "프랜차이즈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베트남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베트남 프랜차이즈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베트남의 국내 기업들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경험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가맹사업자(Franchisor)들은 베트남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 신중하게 조사해야 하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있다. 반면 베트남의 가맹사업 총판(Franchisee)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KFN**

출처 : 하노이 타임즈
<http://www.hanoitimes.vn/economy/2018/07/81E0CA2B/foreign-businesses-appealing-to-franchise-in-vietnam/>



HOT ISSUE 1

“잠재력 높은 부산 프랜차이즈 활성화 위해 市 차원 지원 필요”

한국프랜차이즈協 중앙회 · 부울경지회, 6.12 부산시의회 프랜차이즈 상생 토론회 참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중앙회와 부산울산경남지회(지회장 신영호)가 6월 12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 프랜차이즈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여,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시의회와 협회 부울경지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 프랜차이즈 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자체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창업을 통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임영태 협회 중앙회 사무총장은 “부산 지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383개, 매장 수는 5,653개로 대구, 대전, 인천보다 적지만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다른 지역보다 높다”면서 “부산 지역의 프

랜차이즈 산업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원 부족으로 향토 브랜드의 부산 이탈을 막기 위해 시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전담자를 통한 소통 채널 구축과 협회가 주최하는 ‘프랜차이즈부산’을 비롯한 박람회의 향토 가맹본부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협회 협력이사)은 “부산은 자영업자 감소율이 전국 1위일 정도로 자영업 시장이 과포화 돼 있으며, 폐업을 통한 고려자 일자리 감소와 실직자 증가를 막기 위해 창업교육과 금융지원시스템 강화를 통한 자영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 토론 시간에는 신영호 협회 부울경지회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업계 · 학계 ·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역 경제 부활의 주역으로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HOT ISSUE 2

커피베이 · 태종에프디, 2019년 나트륨 · 당류 저감 부문 유공자 선정 식약처장 표창 수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 이하 식약처)에서 주관한 2019년 나트륨 · 당류 저감 부문 우수업체 및 기관 유공자 포상에서 사과나무(주) ‘커피베이(대표 백진성)’와 (주)태종에프디의 ‘미스타세프(대표 구성희)’가 각각 프랜차이즈 및 중소기업 분야의 공로가 인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국민 식품에 나트륨 · 당류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이어지자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와 함께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나트륨 당류 · 저감화 사업 동참을 독려하며 나트륨과 당류 줄이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부문 당류 저감 우수업체로 선정된 커피베이는 지난해부터 ▲당류 저감화 가이드라인 개발 ▲당류 저감 메뉴 지속 판매 ▲당류 저감활동의 활발한 홍보활동 등 당류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약처가 주관하는 제18회 식품안전의 날에서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중소기업 부문 나트륨 저감 우수업체로 선정된 미스타세프는 소비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정 간편식의 나트륨 저감화 제품 모델을 선정 후 ▲원부재로 본연의 맛의 극대화 ▲천연 재료 함량 조정

및 조리법 연구 등을 통해 나트륨 저감 사양의 제품을 시장에 선보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커피베이와 미스타세프는 지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개최된 ‘건강식 생활 체험한마당’ 가공식품 전시관에 참가하며 저감화된 제품 전시 · 시식 등을 홍보했다.



HOT ISSUE 3

檢, 매장음악 저작권 싸움서
프랜차이즈 손 들어줬다

롯데 무혐의 처분... “저작권法 위반 고의성 없었다”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로부터 고소된 롯데리아와 엔젤리너스커피, 나뚜루팝 등 롯데계열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커피숍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한 후, 음저협이 SPC그룹, 롯데GRS 등 260여 개 기업에 지난 4년간의 공연사용료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첫 소송에서 검찰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8일, 지난해 10월 음저협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롯데GRS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롯데GRS는 롯데그룹의 외식 프랜차이즈 계열사다.

음저협은 지난해 10월 “매장이 음악을 제공받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는 협회와 전송계약만 맺었기 때문에, 매장 내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서부지검 형사2부는 롯데 측이 고의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 측은 음원을 송출하는 업체인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했으며, 계약 당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는 어떠한 저작권 권리도 침해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일체를 확보한다는 것을 보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서상 롯데측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레스토랑 등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이상 공연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롯데GRS측이 저작권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고, ▲음원을 재생한 자가 점주인지 본사인지 불분명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한 곡이 어떤 곡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고 검찰 측은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남돼지집을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주)하남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치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4월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했다.

또한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한 정보 제공 192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65건 등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 등 총 222건(중복 제외)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주)하남에프앤비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주)하남에프앤비에 과징금 부과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혐의...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다. 공정위는 가맹점 모집 ·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 관행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하남에프앤비측은 “법 위반 사항 발견 즉시 자진 시정 완료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HOT ISSUE 4

2019년도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춘계학술세미나

“규제가 해법 아냐”... 모호한 규제는 갈등 조장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 간 자율적 상생경영 통해 해법 찾아야

정부의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규제가 상식적인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이승창 회장은 인사말에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계약 본질은 서로의 생존과 부

지난 6월4일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년도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춘계학술세미나 (18회)’ 종합토론에서 발표자들이 이같이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모호한 규제는 갈등을 조장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규제는 역효과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국내프랜차이즈산업의 위기현황’을 주제로 송실대 박주영 교수(국내 가맹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현황과 시사점)와 법무법인 율촌 김건호 변호사(최근 가맹사업법개정안 동향과 이에 따른 영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대 이수동 교수를 좌장으로 광운대 임영균 교수, CJ푸드빌 유현용 팀장,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염규석 상근부회장, 입법정책연구원 강남기부원장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가가치 증가를 꾀할 수 있는 지속적이면서 공정한 협상에 기초해야 한다”며, “단점을 시정하지 못하고 본질을 훼손하면 시스템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원장은 축사를 통해 “가맹본부의 숫자는 늘고 있지만, 증가폭은 줄고 있다. 이는 인건비 · 임대료 · 중개플랫폼 수수료 증가,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각종 규제들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이어 ‘가맹사업거래와 분쟁조정 현황’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최근 5년간 분쟁조정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로 동일취지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관련쟁점에 대해 가맹점사업

자 또는 그 단체와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소통할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광운대 임영균 교수는 종합토론 주제발표에서 “모호한 규제는 갈등을 조장하고, 합법적이지만 비윤리적인 경우 해결이 어렵다. 상식에 부합해야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는 하되 모호하지 않고,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정책연구원 강남기 부원장도 “최근 정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노동조합과 유사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여 가맹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판례해석을 통해 도출된 기준을 중심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근로자성을 검토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관련 가맹점단체의 권한과 관련된 개정안은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논의 등 정부의 규제강화정책이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과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동반성장의 해법은 아닐 수 있다”며, “오히려 정부규제의 최소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인 상생경영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원장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이승창 회장





서울 서초동 협회 희망실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가맹본부 실무자 교육,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해결해 드립니다”

실무자 역량 강화와 가맹본부 인재 공급 위한 2019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 과정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맹본부의 우수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연중 상시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 과정을 재직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특정 산업·직종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및 지원하고 기업의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 과정이다.

협회는 지난 2015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전략분야 인력양성’ 사업자로 선정돼 현재까지 매년 200여사 재직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직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업계에서 검증된 자체 전문 강사풀을 활용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을 수강한 실무자들 및 가맹본부들과 설문조사와 수요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커리큘럼에 반영, 일선 현장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김가네, 크린토피아, 네네치킨, 원할머니보쌈, 피쉬앤그릴, 뽕뜨락피자 등 유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본 과정을 통해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교육 역시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프랜차이즈 상권분석 ▲불공정거래 예방 가맹사업법 ▲해외 진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점 위생 안전 관리 ▲슈퍼바이저 CS ▲프랜차이즈 경영 계획서 작성(실습) 등 재직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10개 과정 31회차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협회와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자로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한다. 재직자 교육을 원하는 기업은 협회 컨소시엄 교육원 홈페이지(<http://www.edukfa.or.kr>)에서 협약서를 다운받아 날인 후 협회에 제출하면 협약 체결이 완료되며 재직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을 원하는 교육 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서울 서초동 협회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교육 신청 인원이 한 곳당 20명 내외일 경우 출장 교육도 가능하다. 수강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교재와 중식, 다과 등도 함께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과 일정 등은 교육사업팀(hm@ikfa.or.kr, 070-7919-4157)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년도 프랜차이즈 재직자 무료 교육과정 하반기 교육 안내

자세한 커리큘럼은 교육원 홈페이지 www.edukfa.or.kr 참조 바랍니다.

교육과정명	훈련내용	교육기간
가맹점 위생 안전 관리	식자재위생관리, 시설물위생관리, 물질안전관리 등	6월12일(수)
슈퍼바이저 대상 CS (Customer Service) 과정	FC가맹점 서비스지원전략, FC신뢰관계구축 및 갈등관리, FC서비스코칭실습 등	6월27일(목)
가맹점 위생 안전 관리	식자재위생관리, 시설물위생관리, 물질안전관리 등	7월11일(목)
슈퍼바이저 필수 프랜차이즈 상권분석	입지와 상권 이해, 상권분석 프로그램 활용과 데이터 수집방법 등	7월17일(수)~18일(목)
프랜차이즈 브랜딩 마케팅 전략	브랜드아이덴티티전략수립, 브랜드포지셔닝전략수립, FC브랜드네임개발, FC브랜드디자인개발	8월22일(목)~23일(금)
슈퍼바이저 대상 CS (Customer Service) 과정	FC가맹점 서비스지원전략, FC신뢰관계구축 및 갈등관리, FC서비스코칭실습 등	8월28일(수)
프랜차이즈 경영 계획서 작성(실습)	전략방향수립하기, 예산편성및조정, 경영목표수립, 사업계획수립 등	9월19일(목)~20일(금)
프랜차이즈 신규 브랜드 사업성 분석 과정	FC신규브랜드사업타당성검토, FC내부및외부사업환경분석 등	9월26일(목)~27일(금)
프랜차이즈 브랜딩 마케팅 전략	브랜드아이덴티티전략수립, 브랜드포지셔닝전략수립, FC브랜드네임개발, FC브랜드디자인개발	10월17일(목)~18일(금)
프랜차이즈 경영 계획서 작성(실습)	FC신규브랜드사업타당성검토, FC내부및외부사업환경분석 등	10월23일(목)~24일(금)
프랜차이즈 신규 브랜드 사업성 분석 과정	FC신규브랜드사업타당성검토, FC내부및외부사업환경분석 등	10월31일(목)~11월1일(금)
불공정거래 예방 가맹사업법	입지와 상권 이해, 상권분석 프로그램 활용과 데이터 수집방법 등	11월14일(목)
슈퍼바이저 필수 프랜차이즈 상권분석	입지와 상권 이해, 상권분석 프로그램 활용과 데이터 수집방법 등	11월21일(목)~22일(금)

* 교육일자 및 운영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월한빌딩2F(사무실), B1(교육장)), Tel. 02-3471-8135, hp. www.edukfa.or.kr



“한류 타고 세계로!”… 한국프랜차이즈協, 대만 등 해외 박람회 참가사 모집

인도네시아,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 진출 지원…
과포화된 국내 시장에 새로운 전기 마련 모색



정부의 신남방 진출 정책과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바탕으로 'K-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하반기 인도네시아와 대만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정부와 협력해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한다.

협회는 지난 필리핀(3월)과 中 베이징(5월) 박람회 참가를 성황리에 마친 데 이어, 7.5~7 인도네시아 '2019 국제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비즈니스 전시회'와 10.4~7 '2019 대만 국제 프랜차이즈 전시회' 한국관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협회는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 지원과 K-프랜차이즈 위상 제고를 위해 한국관 참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이 활발하게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국관 모집도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면서 관심이 있는 업체는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만은 높은 소득 수준과 맞벌이 문화의 보편화를 바탕으로 외식 문화가 일찍이 자리잡으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어 국내 업체들이 가장 먼저 진출을 고려하는 곳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대만 내 성공이 중국을 비롯한 중화 문화권의 타 국가에서의 성공으로 가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맘스터치, 네네치킨, 스트릿썬더스 등 21개 업체가 99개 매장(2017, 농림축산식품부)을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연계하여 인도네시아 및 대만 프랜차이즈 박람회 한국관에 참가하는 업체들에게 ▲부스 임차비 및 시설비 50% 감면 ▲외국어 공동 홍보물 제작 ▲1개사 1인 현지 통역 등을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향후 매뉴얼 현지화 R&D 및 해외 브랜딩 전략 컨설팅 지원으로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해 나간다.

아울러 협회는 공동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WFC(세계프랜차이즈협회) 및 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연맹) 정회원으로서 함께 가입돼 있는 인도네시아프랜차이즈협회(AFI) 및 대만프랜차이즈협회(ACFPT)와의 적극적인 교류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및 대만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에 관심있는 업체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ikfa.or.kr>)에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또는 정책사업팀(02-3471-8135~8 내선 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인 대회’ 참가

중소기업 포상 및 격려로 중소기업인 자부심 고취…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다짐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5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후 첫 현장 행보로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프랜차이즈 업계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다짐했다.

1990년에 시작돼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 대회는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등 우수 중소기업을 포상하고 격려해 중소기업인 스스로 성과를 돌아보고 자부심을 높이는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장 등 12개 중소기업계 협회 및 단체와 각 분야 중소기업인들까지 중소·벤처기업인과 관련 협력단체 관계자들 총 400여 명이 초청됐으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제 활력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성장의 열매를 중소기업, 근로자, 서민과 중산층 등 누구나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국민성장 시대'를 중소기업 활성화로 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중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농식품부 · aT ‘푸드페스타 2019’ 동참

5월 외식의 달 맞아 외식업 소비 촉진 위한 축제



경기 침체와 경영환경 변화로 개별 외식업소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5월 한 달간 외식업 소비촉진을 위한 ‘푸드페스타 2019(Food-Festa, 2019)’에 동참했다.

행사 첫날인 5월 1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동수 협회 상근부회장 등 외식업계와 농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들이 모인 가운데 ‘5월 외식의 달’ 선포식이 개최됐다.

선포식에서는 외식의 가치를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스타셰프 재능기부단 출범식 및 토크 콘서트, 외식업 · 농업 · 소비자단체가

함께 하는 상생협약식 등을 진행됐다.

또한 협회는 외식업 · 농업계의 동반성장과 건전한 외식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에 농업계(농협, 축산 · 원예 자조금단체),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교육원) 등과 함께 참여했다.

이 협약에 따라 외식업계는 개발된 레시피의 업계 적용(판매), 국내 산 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참여브랜드는 김가네, 파리바게뜨, 투썸플레이스, VIPS, 계절밥상, 아딸, 치맥킹 등이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協 제34~35차 사회봉사 전개

사회봉사처 · 청년강소기업처 등 보호아동들 후원하고 봉사활동 전개



최성수 청강위원장(왼쪽)과 부청하 상록보육원장(오른쪽)이 후원금 및 후원품 전달식을 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회봉사위원회(위원장 김익수 · 이하 사회봉사위)가 4월 다니엘보육원과 5월 관악구 상록보육원을 찾아 ‘함께하면 행복합니다’를 모토로 제34차 및 제35차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회봉사위는 4월 23일 서초구 다니엘복지원(원장 지승헌)을 찾아 보호아동 120여명을 후원하고 식사와 간식을 배식하는 등 온정을 나눴다. 협회 사회봉사위원장 김익수 채선당 대표, 부위원장 오종환 토프레소 대표, 부위원장 이정열 남다른감자탕 대표, 부위원장 원현 카페믹스 대표 등 사회봉사위원들과 김동수 협회 상근부회장 등 사무국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5월 30일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협회 청년강소기업위원회(위원장 최성수 · 이하 청강위)와 함께 관악구 상록보육원(원장 부청하)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번 사회봉사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청강위 위원들이 쌀과 라면을 후원하고 봉사활동에 직접 동참해 의미를 더했으며, 사회봉사위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회원사 및 타 분과위의 참여를 통해 소외계층과 온정을 나눈다는 계획이다.

이날 사회봉사에는 김익수 위원장과 오종환 부위원장 등 사회봉사위원들과 청강위원장 최성수 청담동말자씨름 대표, 함지훈 밸킨스 대표, 이영채 지

호한방삼계탕 대표, 김영환 치킨뱅이 대표, 박건욱 셰프의부대찌개 대표, 유전균 부엉이돈까스 대표, 박상용 경성주막1929 대표, 이종근 키크부대찌개 대표, 정성취 근대골목단팥빵 대표 등 청강위 위원들, 장성식 푸리닭 대표 등 회원사 대표들, 그리고 김동수 협회 상근부회장 및 사무국 임직원들까지 총 20여명이 참여했다.

협회 사회봉사위는 지난 2013년 출범 이후 7년째 매월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9년 사회봉사활동 후원품은 100~150인분 상당으로 채선당(금일봉), 토프레소(견과류), 남다른감자탕(감자탕), 카페믹스(과일), 주방뱅크(고무장갑 · 빵), 본죽(죽), 파리바게뜨(빵), 못된고양이(양말), 커피메이(미니파운드케이크 · 주스류), 셀렉토커피(빵), 좋은나라(화장지류), 노랑통닭(치킨), (주)태종에프디(설렁탕), 60계치킨(치킨), 피자마루(피자 · 콜라), 돈까스클럽(피자 · 콜라), 김가네(김밥), 바르다김산생(김밥), 피자나라치킨공주(피자 · 치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호두과자)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상생과 윤리경영으로 동반성장”... 한국프랜차이즈協, ‘2019 패밀리 데이’ 개최

협회 신규 회원사 및 임원사 간의 소통과 화합 증진...



뒷줄 왼쪽부터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 권욱 (주)봉푸드 이사, 이인덕 인덕식품 대표, 김민정 (주)아이엔지스토리 팀장, 김민찬 (주)델리푸드 대표, 이재현 (주)엠디스컴퍼니 대표, 유홍 비즈통상 대표, 박일 (주)지예프 포유 대표, 오병목 서울프랜차이즈센터(주) 이사, 김동산 한국단체보험연합(주) 대표, 김윤경 (주)도드람에프씨 대표, 강준식 벨룸마케팅컴퍼니 대표, 백승민 디티코리아 과장, 안진경 (주)바스틀리코리아 대표, 이상민 (주)소프린 대표, 이창하 (주)다비치안경체인 총괄대표, 김동수 상근부회장, 이용재 상임부회장, 이병역 명예회장, 박기영 협회장, 장순옥 여성위원장, 김광철 교육위원장, 임영태 사무총장

당부드리며, 협회도 모든 회원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 서초동 협회 사무국과 교육장을 둘러 보고 ▲회원사 전용 렌탈물 등 복지 사

업 ▲회원사 홍보 및 협회지 발간 ▲재직자 무료 교육 및 연계 학위 과정 장학 혜택 ▲산업부 · 공정위 · 중기부 · 식약처 등 정부 · 지자체 협력 사업 ▲포럼 · 세미나 등 학술대회 ▲11개 분과위 체제와 미국서부지회를 포함한 국내외 8개 지회 체계 등 협회 주요 업무 및 실적에 대한 소개를 상세히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프랜차이즈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상생과 자정 의지를 다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5월 17일 협회 사무국에서 올해 신규 회원사들과 협회 임원사들과 함께 ‘2019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패밀리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사 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한편 상생과 윤리경영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기영 회장과 이병역 명예회장, 김광철 교육위원장, 장순옥 여성위원장, 이용재 상임부회장 등 협회 임원진 및 분과위원장들과 박일 바우네나주곰탕 CEO,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 이창하 다비치안경 총괄대표 등 신입 회원사 대표들, 그리고 김동수 상근부회장, 임영태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국 임직원 등 총 30여명이 참가했다.

박기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일 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 등 다방면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해 주고 계신 신입 회원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활발한 협회 활동 참여와 상생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주시길

또한 하반기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는 협회 박람회와 12월로 예정된 ‘제2회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2019 제20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 하반기 ‘인도네시아(7월) · 대만(10월) 박람회 한국관’ 참가사 모집 등 하반기 주요 협회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한국프랜차이즈協, 5.11~13 ‘2019 베이징 프랜차이즈 박람회 한국관’ 참가

프랜차이즈 업계 해외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과포화된 국내 시장 활로 모색



2019 베이징 프랜차이즈 박람회 한국관에 참가한 청담동말자싸롱 부스에 참관객들이 몰려 있다



5.11~13 베이징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직접 참가한 이효성 해피브릿지협동조합 CEO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KOTRA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박람회 ‘2019 베이징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했다.

중국프랜차이즈경영협회(CCFA)가 주최하는 ‘베이징 프랜차이즈 박람회’는 매년 중국국제전람중심(CIEC)에서 21,000㎡ 규모로 개최되며 500여개 업체에 참관객만 4만여명에 육박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다.

협회 및 KOTRA는 이번 박람회에 청담동말자싸롱((주)금탑에프앤비 · 대표 최성수), 국수나무(해피브릿지협동조합 · 이사장 김철환), 서래갈매기(서래스터 · 대표 박철) 등 10개 브랜드 상담 부스와 공동 홍보부스 등 총 13개 부스 규모로 한국관을 구성했다.

내 시장 과포화의 대안으로 정부와 협력해 업계의 해외 박람회 진출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력이 부족한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 베이징 프랜차이즈 박람회 한국관 참가 리스트〉
(주)금탑에프앤비(대표 최성수, 청담동말자싸롱), 해피브릿지협동조합(이사장 김철환, 국수나무), (주)서래스터(대표 박철, 서래갈매기), (주)우주에프앤디(대표 이우성, 우주라이크 커피), (주)루시카토(대표 강인석, 루시카토 · 마리웨일237), (주)DF KOREA(대표 강창민, 마녀주방), (주)바이올푸드글로벌(대표 권지훈, 유가네닭갈비), (주)용미울(대표 이영찬, 용우동), (주)곤트란세리에코리아(대표 강병철, 곤트란세리에), 농업회사법인일영팜(주)(대표 이용민, 밥리버거), 한국관 공동 홍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부자비즈, KF리더 과정 8기 개강

기업 인큐베이팅 및 경영자·임직원 프랜차이즈 전문성 강화에 초점

지난 4월 18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부자비즈(한국창업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KF리더 과정 8기’가 개강됐다. KF리더 과정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016년부터 운영해오던 CEO 과정이 경영자는 물론 실무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실무과정으로 전환된 교육과정이다.

KFCEO과정은 글로벌 프랜차이즈 징기스칸 육성을 목표로 선진화된 프랜차이즈리더를 위해 리더십, 경영전략, 인문학, 문화 활동, 빅데이터 등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CEO들의 안목을 높여주는 내용으로 진행한 것이 특징인데 반해, KF리더 과정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인큐베이팅과 프랜차이즈 경영자 및 임직원들의 프랜차이즈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KF리더 과정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이론적인 내용을 탈피해 프랜차이즈 기업에 꼭 필요한 핵심TOOL을 중심으로 기업 현장에 바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본 교육 외에 코칭 및 마케팅 지원 등 인큐베이팅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다.

주임교수인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은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없는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에 참여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KF리더 과정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교육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개별 면담을 거쳐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코칭과 성장 지원솔루션을 제공해 교육 참여 기업들이 공동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기에는 한식, 일식, 가정간편식, 분식, 주스, 커피,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경영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KF리더 과정 9기는 8월 말 개강 예정이며 교육기간은 12주다. 교육비는 2백만원(부가세별도)이다. KFCEO 및 KF리더 원우, 연세대 FCEO과정 원우의 경우 20% 할인된다. 9기 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010-3785-8406 번으로 교육문의자 이름을 남기면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 설비 ‘소유’에서 ‘공유’로… 창업 비용 절감에 혁신적 기여”

한국프랜차이즈協, 회원사 전용 렌탈몰 개설해 동반성장 모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전용 렌탈몰 초기 화면 예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4월 12일 삼성전자 등 국내외 메이저 브랜드 제품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원사 전용 렌탈몰을 개설했다.

본 렌탈몰은 가맹점 창업 또는 운영시 필요한 설비를 구입 및 교체하거나 관리하는 비용을 낮춰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동반 성장과 회원사 복지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설됐다. 특히 최근 ‘소유’의 문화가 ‘공유’의 문화로 이동하면서 구매 방식이 아닌 월 사용료 방식의 렌탈 방식으로 제품들을 제공, 경제적 측면은 물론 A/S와 사후 처분 등 다방면에서 수 많은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1월 22일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에어컨, 의류관리기, 청소기, 냉장고, 제빙기, 전자레인지, 가습기,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점포 및 회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브랜드들의 50여종 수 백여 제품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렌탈몰을 구축했다.

이용 가능한 대상은 협회 소속 회원사 가맹본부와 가맹점이며 폐쇄물 형태로 운영된다. 렌탈몰 홈페이지(<http://www.ikfarental.com>) 또는 협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회원사 소속 여부에 대한 인증을 거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문의는 협회 대외협력팀(02-3471-8135~8, 내선 5)으로 하면 된다.

“가맹점 안정적 창업 환경 조성”... ‘프랜차이즈 가맹점 안심폐업보험’

신규 가맹점 창업자의 실패 리스크를 낮추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안전 창업을 지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신규 가맹점 창업자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폐업하게 될 경우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안심폐업보험’을 (주)DB손해보험·더매칭플레이스(대표 김철민)와 공동운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안심폐업비용보험’은 신규 가맹점 창업자의 실패 리스크를 낮추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안전 창업을 지원해 건전한 가맹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용 보험 상품이다.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이 창업시 1곳당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이후 해당 신규 가맹점은 예기치 못한 폐업시 발생하는 일부 리스크를 안심폐업비용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맹본부는 이를 통해 기존의 상생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 가맹점 만족도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실질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이를 위해 (주)DB손해보험과 더매칭플레이스 등과 함께 협의를 지속한 끝에 지난 1월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프랜차이즈協,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 통해 성과창출 도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및 유관 기관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개소한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를 통해 성과 창출에 동참한다.

지난 5월 2일 개최된 개소식에는 김동수 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주한 아세안 국가 투자청(태국·싱가포르·필리핀) 임직원 및 신남방지역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신남방 데스크는 신남방 시장을 향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신남방 데스크는 기업들을 위해 분야별 전문상담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현지 정보제공, 현지 진출지원 거점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현장애로를 파악하고 정책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부처간 협업채널을 활용해 신속하게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신남방 데스크는 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 국별 맞춤형 협력모델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프랜차이즈協 7.3 ‘2019 임원연찬회의’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019 임원연찬회의를 오는 7월 3일 경기도 용인시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한다.

매년 개최되는 임원연찬회의는 프랜차이즈 업계와 협회를 둘러싼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식사를 함께 하며 임원사 간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다. 또한 윤리교육 또는 명사 강연과 협회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한 토의와 사무국과의 의견 교환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협회장 포함 전 임원사이며 참석 신청 방법은 협회 기업지원팀(070-7919-4145)으로 유선 신청하거나 협회 홈페이지 행사 참석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37기 FC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수료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재남 원장)이 주관하는 '제37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이 10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4월 27일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서 열린 수료식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뒀다. 수료식에는 장재남 원장과 임영태 협회 사무총장, 박민구 두드림창업연구소장 등 내외 귀빈과 수료생 20여명이 참석했다.

37기 과정은 가맹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임원들 등 21명이 참여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됐다.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징, 상권분석, 인사노무, 가맹법률, 세무회계, 협상스킬, 마케팅 등 실무자들의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또한 수료생들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받는 기쁨을 함께 누렸다.

한편, 제 38기 과정은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10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가맹점수가 5년새 1.5배 급증하면서 '프랜차이즈의 꽃' 슈퍼바이저에 대한 가맹본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정을 통해 본부의 핵심인력으로서의 역할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대상은 본부 슈퍼바이저나 임직원, 자영업자, 가맹본부 취업 희망 대학생·일반인 등이며, 수강 문의를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02-2233-4777)으로 하면 된다.



세종대 FC MBA 과정, 7.1~8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프랜차이즈 경영학 석사 과정이자 명실상부 최고 권위의 프랜차이즈 전문 대학원인 '세종대 프랜차이즈 MBA'(이하 세종대 FC MBA) 과정이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모집한다.

세종대 FC MBA 과정은 프랜차이즈와 유통, 마케팅에 특화된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원우들에게 최적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프랜차이즈 CEO와 가맹본부 임직원, 학계·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는 과정이다.

또한 현직 CEO는 물론이고 많은 분야에서 이미 산업의 주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300여명의 석사 동문들과의 끈끈한 네트워크도 큰 자산이 된다.

협회는 회원사 임직원이나 자녀에 한해 협회장 추천 심사를 거쳐 등록금의 30%를 지원한다. (잔여 학기 성적 3.5점 이상자에 한함) 입학 문의를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학과(02-3408-4478) 또는 협회 교육사업팀(070-7919-4165)로 하면 된다.



박기영 협회장, ‘최초의 프랜차이즈’ 美 싱거社 재봉기 사무국 증정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협회 사무국에 세계 최초로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한 것으로 잘 알려진 싱거社(Singer Sewing Company, 1851~)의 1900년대 초 생산 재봉기를 사무국에 5월 20일 기증했다.

1851년 설립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실용 재봉기를 개발해 170여년 동안 세계 최고의 재봉기 제조사로 우뚝 서 있는 글로벌 기업이며, 1863년부터 더욱 많은 소매 판매를 위해 각 지역별로 소매업자를 모집하고 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교육을 실시, ‘가맹비를 받고 교육 제품의 판매 권한을 제공하는 대신 제품이 판매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최초의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박기영 협회장은 “모든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프랜차이즈의 본질을 지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최초의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한 싱거社 재봉기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중심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국에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 청년강소기업위원회, 해마로푸드서비스(주) 본사 탐방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청년강소기업위원회(위원장 최성수·이하 청강위)가 지난 4월 18일 협회 수석부회장사인 해마로푸드서비스(주) 서울 강동구 본사를 탐방하고 4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박기영 협회장과 정현식 해마로푸드서비스(주) 회장이 참석했으며, 최성수 위원장을 비롯한 청강위 위원들 30여명이 함께 했다. 탐방은 국내에서 세 곳뿐인 외식 프랜차이즈 상장사 해마로푸드서비스(주) 본사의 사업 방향과 업무 공간과 복지 시설, 다양한 인프라를 체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정현식 회장이 직접 맘스터치 등 해마로푸드서비스(주) 브랜드의 성장 과정과 현황, 주요 전략 등을 소개하고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 운영에 대한 소중한 조언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5월 30일 청강위 5월 정기 모임은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봉사위원회 제35차 협회 사회봉사 활동과 통합하여 관악구 상록보육원에서 진행됐다.



협회 여성위원회, (주)팜애피아 탐방 ‘4월 정기모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장순옥)가 4월 정기모임으로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신선농산물 유통전문회사 팜애피아(주)(대표 박용분) 본사를 찾았다.

이날 탐방에는 장순옥 위원장, 신향숙 (주)애플앤유 대표, 강미혜 노무법인씨앤비 부대표, 박효순 나루가온에프앤씨(주) 회장, 조선영 (주)포스코디 대표, 김지영 (주)대훈 부대표 등 여성위원 20여명이 함께 했다.

팜애피아(주)는 2012년 설립 이후 수 년 만에 코스트코, 엔타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GS리테일,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광주) 등 유통 공룡들 및 해마로푸드서비스, 이바동감자탕 등 유수의 가맹본부들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연 매출 200억원대를 달성하며 각종 정부 표창을 수상한 우수기업이다.

여성위원들은 공장을 둘러 보며 최고의 위생 수준과 효율의 극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장 스토리와 사업 전략 등을 경청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위원들 간의 친목을 다졌다.



협회 산악회·소나회, 4~6월 정기 모임 잇따라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악회(회장 정인기)가 신록이 우거진 4월과 5월 잇따라 정기 등반대회를 개최, 산악회원들 간의 심신을 단련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산악회는 4월 20일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점봉산 공배령을 찾았다. 점봉산 공배령은 멀리서 보면 곰이 배를 하늘로 향하고 누워있는 모습과 비슷해 공배령이란 이름이 붙은 곳이다.

이어 5월 18일에는 경기도 포천시와 가평군에 걸쳐 있는 운악산에서 5월 정기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운악산은 경기 5악 중 하나이자 경기도의 금강산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산이다. 산악회원들은 수려한 경관을 즐기며 하나되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6월에는 15일 강원도 백운산에서 6월 정기모임이 개최됐다. 산악회원들은 아름다운 동강과 백운산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즐기며 이른 더위를 날리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협회 소나회(회장 이규석) 역시 5월 8일과 6월 5일 잇따라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소나회 회원 40여명은 본격적인 정기 모임 활동을 이어나가며 회원들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사회 구성원들 모두와 함께 하는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Association News

협회소식

한국프랜차이즈協, 末聯 프랜차이즈 국제 세미나 및 한류타운 사절단 참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관련하여 6월 12~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KOTRA '2019 쿠알라룸푸르 한국우수상품전' 연계 세미나 및 한류타운 사절단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100여개사와 해외 12개국 400여사가 참가해 각 브랜드 및 상품을 알리고 상호 진출 관련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는 자리다.

특히 협회는 6월 12일 열린 '말레이시아-대한민국 프랜차이즈 국제 세미나 2019'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및 협회 현황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 유망 업종과 진출 현황, 강점 등을 현지 업계에 전했다.

또한 6월 13~14일 진행된 '한류타운 프랜차이즈 사절단'에 동행, 쿠알라룸푸르 원우타 마(1 Utama) 쇼핑센터에 30여개 브랜드, 5000㎡ 규모로 조성될 한류타운을 시찰하고 회원사를 포함한 국내 브랜드들의 입점 가능성을 타진했다.



(주)이연에프엔씨 오송공장 준공식...“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

'한촌설렁탕'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사(주)이연에프엔씨(대표 정보연)가 6월 14일 250억원을 들여 완공한 오송공장 준공식을 열고 종합식품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섰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개최된 준공식에는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박천희 상임부회장(주)원앤원 대표, 임영태 사무총장 등 협회 관계자들과 정보연 대표 및 (주)이연에프엔씨 임직원, 지역 관계자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에 신축된 오송공장은 충북 음성 공장에 이은 두 번째 공장으로 충북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5000평 규모를 자랑하는 대규모 CK(Central Kitchen, 조리제품 생산시설) 공장이다. (주)이연에프엔씨는 오송공장까지 정상가동에 들어가며 1500개 매장과 HMR(가정간편식), 기타 유통채널에 연간 2000억원대 규모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Association News

협회소식

제38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개강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주최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재남 원장)이 주관하는 '제38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이 6월 15일 입학식을 열고 8월 17일까지의 10주간 과정에 돌입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장재남 원장과 박민구 두드림창업경제연구소장 등 내외贵宾들과 다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재직하고 있는 실무자들 및 임원들이 입학생으로 참석했다.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은 가맹점 수가 최근 5년새 1.5배 급증하면서 '프랜차이즈의 꽃' 슈퍼바이저에 대한 가맹본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정을 통해 본부의 핵심인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리자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며, 수료생들은 협회 주최 슈퍼바이저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는 한편 협회장 명의 수료증을 수여받는 기쁨도 누리게 된다.



제25기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과정 수료식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주최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원장 장재남)이 주관하는 '제25기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과정'이 지난 2월 28일부터 15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6월 13일 서초구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임영태 협회 사무총장, 이재곤 제4대 총동문화장(한국프랜차이즈전문가포럼 회장) 등 내외贵宾들과 제25기 과정을 함께 한 수료생 29명이 참석했다.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과정'은 가맹본부 창업과 가맹본부 최고경영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 수료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수료증 ▲총동문화 '한국프랜차이즈전문가포럼' 가입, 600여명의 동문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동문 송년회·골프회·산악회 등 각종 행사 참여 등이 제공된다.



Association News

대구 · 경북지회 소식

2019년 4월~5월 행사

2019년 KFA 대경지회 워크샵

대구 · 경북지회(지회장 이재백)는 지난 4월 9일(화)~10일(수) 경북 영덕에 위치한 연수원에서 봄맞이 회원사 단체 워크샵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회원사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50여 회원사가 하나로 단합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1일차는 단합대회 및 세미나와 레크레이션, 2일차는 영덕인근 관광지 투어 및 올레길 걷기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회원사간 친목을 다졌다. 워크샵 행사는 년 1회 진행되며, 4월 정기 월례회와 함께 이루어진다.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봉사단 활동

대구 · 경북지회에서는 2016년부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봉사단은 4월 19일(금) '제39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닭강정 & 훈제막창 무료 시식회'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30여 회원사가 참여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만남의 장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봉사단은 대구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19년 5월 정기월례회 및 무료 공개 세미나

5월 14일 오후 4시부터 대구 · 경북지회 강의실에서 정기월례회 및 무료 공개 세미나 교육을 진행했다. 대구 · 경북지회는 월 1회에 걸쳐 프랜차이즈에 도움이 되는 특강과 월례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2019년 6월 행사

2019년 외식업 하이퍼포머 점장교육 개강

6월 5일 대구 · 경북지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2019 외식업 하이퍼포머 점장 교육과정'의 개강식이 열렸다.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 첫 교육으로 20명의 교육생이 매주 월요일 오전 10~오후 5시(7시간) 동안 4주에 걸쳐 외식업 점장교육에 맞는 교육을 받는다. 대구경북지회의 프랜차이즈 전문 교육은 대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사업으로 교육비가 일부 지원가능하다. *교육일정 및 문의는 사무국 053-626-7664



Association News

부산 · 울산 · 경남지회 소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 · 울산 · 경남지회(지회장 신영호, 이하 부 · 울 · 경)는 회원 간의 화합을 위하여 최근 첫 회원분과모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5월 셋째 주 화요일에는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5월 정기월례회에서는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법 (부제 : 입장 차이)〉의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실시하여 회원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회원사들에게 필요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자금지원(노무지원)과 카오투크 주문하기 활용방안 설명회도 함께 진행했다.



지회는 이와 함께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매월 부울경지회 골프클럽을 개최하고 있다. 올 해 창설된 부울경지회 야구단은 최근 열린 2번째 경기에서 첫 승리를 따낸 후 매 경기마다 연승을 거두며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한편, 6월에는 부산시와의 간담회 개최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컨소시엄이 진행될 예정이며, 7월 2째 주에는 회원사들과 함께 물 맑고 공기 좋은 인근 밀양베네치아로 1박2일 간 하계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월례회 개최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Association News

광주전남지회 · 충남지회 소식

광주전남지회, 지역사회와 아동인권 개선 활동 동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문행우)가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인권 보장 활동에 동참한다.

문행우 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을 비롯,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김영훈 조선이공대 교수 등 100여명의 인사들은 지난 4월 4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한국아동인권센터(센터장 박태순)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박태순 센터장은 “20여년의 아동교육 경험으로 소외되고 미흡한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 광주전남지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한국아동인권센터에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윤교 충남대전세종지회장 (주)가르텐 신사옥 GT타워 준공식

한윤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충남대전세종지회장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주)가르텐 본사 사옥을 130억원을 들여 새롭게 신축 · 확장, 6월 13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한윤교 지회장과 이재백 협회 대구경북지회장 등 협회 회원사 및 임직원들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김중천 대전시의회의장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준공식에 이어 외식브랜드 치킨폰237 런칭 및 뷰티브랜드 세븐데이즈 전 가맹점 월매출 1천만원 돌파 기념식도 함께 진행됐다.

(주)가르텐은 지난 2013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서울 본사를 현재의 본사 위치인 대전으로 이전한 바 있으며, 이후 '가르텐 호프&레스토랑' 등 브랜드로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가맹사업을 전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 왔다.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친환경 디지털 복합기 렌탈 전문기업



(주)보스텍

디지털 복합기 분야,
최고의 재제조 Recycling 기술로
(주)보스렌탈는 저렴한 비용과
높은 효율성의 디지털 복합기 렌탈서비스와
친환경 자원재생 Total Solution을 선사해드립니다



고객만족 렌탈 서비스

납품 및 설치 후 카운터 자동 검토,
에러나 종이 걸림, 토너 잔량 등의
정보를 원격시스템 통해 복구
지원제공, 해피콜을 이용한 다양한
고객의 소리 모니터링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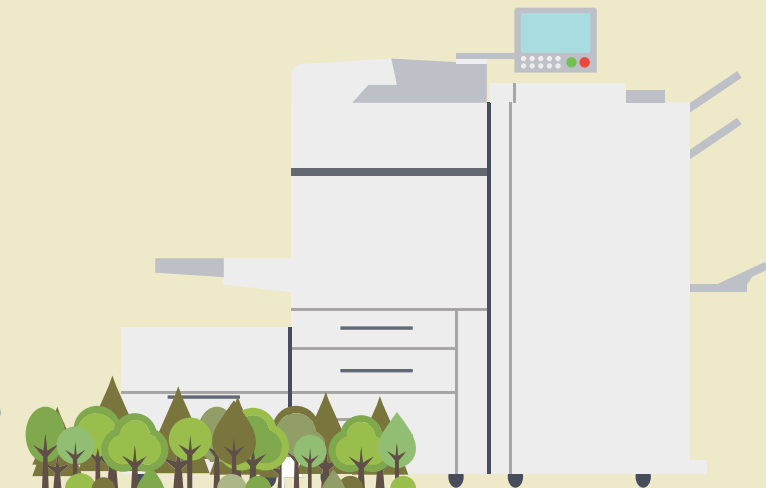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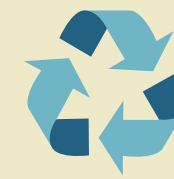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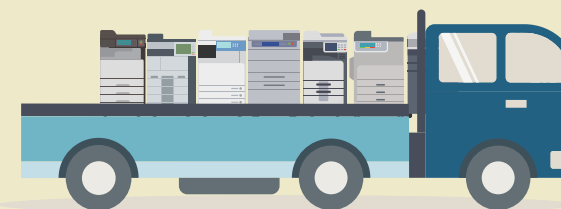
친환경적 렌탈 서비스

국내에서 렌탈 기한 만료한 디지털
복합기를 체계적으로 회수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수출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인 산업 폐기물 제로를
실천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기업



튼튼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렌탈 서비스

최신 기술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사무환경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는 기업



(주)보스렌탈는 재제조 제품과 함께 신제품 렌탈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신규 회원 / 교육 일정

2019. 03 ~ 06월 신규회원 현황

구분	업체명	브랜드명	업종	대표자	가입일
정회원	(주)다비치안경체인	(주)다비치안경체인	도소매업	김인규	2019.03.27
	비즈통상	아뜰리에뷰티아카데미	도매	유 흥	2019.04.11
	(주)케이에스티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서비스업	이행열	2019.06.10
	(주)한울김치도가	김치도가	외식업	백창기	2019.06.12
협력회원	(주)바스틀리코리아	바스틀리	도소매업	안진경	2019.04.24
	벨룸마케팅컴퍼니	벨룸마케팅컴퍼니	도소매업	강준식	2019.05.14
	서울프랜차이즈센터(주)	서울프랜차이즈센터	서비스	최은주	2019.05.14
	(주)세이버	세이버투플러스	제조업	송나영	2019.05.27
	잇초키친	잇초키친	제조업	천기정탐장	2019.06.12

2019. 06 ~ 07월 교육 일정 안내

자세한 커리큘럼 및 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 www.edukfa.or.kr 및 협회 홈페이지 www.ikfa.or.kr 참조 바랍니다.

[재직자 무료교육] 가맹점 위생 안전 관리

기 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비 용
6월 12일(수) / 10:00~19:00	20명(선착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 대상 :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슈퍼바이저 및 마케팅 분야 업무수행자 또는 수행예정자

목 표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자재 위생관리, 시설물 위생관리를 통해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청결한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

훈련 내용 : 가맹점 위생관리/안전관리

제38기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기 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비 용
6월 15일(토)~8월 17일(토) / 매주 토요일 10주	40명(선착순)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강의실 (서초구 논현역 인근)	1,300,000원

교육 대상 : 가맹본부 슈퍼바이저 및 임직원, 자영업자, 가맹본부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일반인

목 표 :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슈퍼바이저 전문가 양성과 가맹점의 경쟁력 강화

훈련 내용 : 슈퍼바이징, 상권분석, 인사노무, 가맹법률, 세무회계, 협상스킬, 마케팅 등

신규 회원 / 교육 일정

[재직자 무료교육] 슈퍼바이저 대상 CS(Customer Service)

기 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비 용
6월 27일(목) / 10:00~19:00	20명(선착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 대상 :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슈퍼바이저 및 마케팅 분야 업무수행자 또는 수행예정자

목 표 : 체계화된 LSM 이론과 실전스킬을 토대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점포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훈련 내용 : LSM 전략 수립 및 구축, LSM실습

[재직자 무료교육] 가맹점 위생 안전 관리

기 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비 용
7월 11일(수) / 10:00~19:00	20명(선착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 대상 :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슈퍼바이저 및 마케팅 분야 업무수행자 또는 수행예정자

목 표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자재 위생관리, 시설물 위생관리를 통해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청결한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

훈련 내용 : 가맹점 위생관리/안전관리

[재직자 무료교육] 슈퍼바이저 필수 프랜차이즈 상권분석

기 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비 용
7월 17일(수)~18일(목) / 10:00~17:00	20명(선착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 대상 :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슈퍼바이저 및 프랜차이즈 본사 점포개발 업무수행자 또는 수행예정자

목 표 : 상권관련 기초 이론을 토대로 출점 타당성을 분석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고유의 표준입지 설계하는 능력 함양할 수 있다.

훈련 내용 : 입지와 상권이해, 상권분석프로그램활용과 데이터 수집방법 등

Association News

협회 및 협회장 동정

2019. 4월 일정

- 03
- 2019 WFC 마드리드 총회(3일~7일)
- [컨소시엄]슈퍼바이저상권분석(3일~4일)
- 푸드페스타 회의 참석
- 소나회 4월 정기모임

- 09
- 코리아세일페스타 업무협의

- 10
- 농림부 푸드페스타 회의

- 12
- 청년희망 스마트 일자리프로젝트 선포식

- 15
- 박람회 월간 전체회의
- 김선동 의원실 2+1제 공청회 협의
- 우리은행 기업영업전략부 미팅

- 16
-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협의체 회의
- 안심페어보험 실무 회의

- 17
- [컨소시엄]불공정거래예방가맹사업법
- 농림부 푸드페스타 회의
- 대한상의 유통산업연합회 실무회의
- 리드코리아 협의

- 18
- 청년강소기업위원회 4월 정기모임
- 여성위원회 기업탐방

- 19
- KF리더과정 입학식
- 상생협력워크숍 준비회의

- 20
- 산악회 4월 정기모임(점봉산)

- 23
- 34차 사회봉사
- 중소기업 비즈포럼
- 유통산업연합회 실무위원회의

- 24
- [컨소시엄]FC글로벌시장분석
- 스마트일자리프로젝트 실무간담회
- 푸드페스타 회의

- 25
- 제29차 대한상의 유통위원회
- KOTRA 서비스 해외진출 연구 프랜차이즈 1차 분과회의
-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회의
- 서울시 기후대기과 미팅

- 26
- 서총 회장 조찬간담회
- 상생협력워크숍 현장 점검
-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관협의회 회의
- 해양수산부 미팅

- 27
- 제37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수료식

- 29
 - 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 미팅
- 30
 - [컨소시엄]슈퍼바이저LSM
 - 창업진흥원 업무협의
 - 박람회 관련 미팅

2019. 5월 일정

- 01
- 푸드페스타 선포식

- 02
- 신남방비즈니스데스크 출범식
- 식품관련 제도개선간담회
- 박람회 실무 협의

- 08
- 소나회 5월 정기모임

- 09
- 대한상의 유통산업연합회 회의
- 대 · 중소협력재단 동반진출협의회 주관기업 설명회
- 프랜차이즈 민 · 관합동 상생협력 워크숍

- 10
- 대한상의 한국소매협의회 회의
- 김지협회 협의체 회의
-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회의

- 11
- 2019베이징 국제프랜차이즈 전시회(11일~13일)

- 14
- [협회장]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 15
- 경기따복하우스 부천회의
- 대한상의 유통산업연합회 총회
- 제20회 문구의 날 기념식

- 16
- [컨소시엄]프랜차이즈브랜딩마케팅전략(16일~17일)
- 경기따복하우스 수원회의
- 할랄수출협회 미팅

- 17
- 산악회 5월 정기모임(17일~18일, 시랑도)
- 서울시 기후대기과 미팅
- 대한상의 KSF 협의
- [협회장] 2019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패 밀리데이

- 18
- 산악회 5월 정기모임(운악산)

- 21
- 직능소상공인 미팅

- 22
- 경기따복하우스 수원회의
- 공정위 업무 협의

- 23
- 대구박람회 실무협의
-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추진

- 24
 - 한국콘텐츠허원 업무협의
 - 김지협회 협의체
- 28
 - 소상공인분과 전문위원회
 - [컨소시엄]프랜차이즈신규브랜드 사업성 분석과정(28일~29일)
 -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
 - 식약처 도시락 나트륨 저감화 간담회

- 29
- 연대FCEO 총동문 회장배 골프대회

- 30
- [컨소시엄]프랜차이즈신규브랜드 사업성 분석과정(30~31일, 양산)
- 35차 사회봉사

- 한국외식업중앙회 2019년도 정기총회
- 대한상의 유통산업연합회

- 31
- 실태조사 2차 회의
- 가맹분야 협약평가위원회
- 2019 유통법학회 하계워크숍

2019. 6월 일정

- 03
- 마카롱 택시 관련 미팅

- 04
-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정책과제 발굴 간담회
- 2019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춘계학술세미나
- 중기부 정부지원 개편방안 간담회
- 편의점산업 실태조사 회의
- 박람회 실무협의
- 식약처 사업 관계자 미팅

- 05
- 소나회 6월 정기모임
- 외식업중앙회 미팅

- 07
- 코트라 업무 협의

- 08
-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 10
- 서울시 전기이륜차 관련 회의
- 특허청 업무협의
- 인도네시아 전시회 사전설명회
- 국회입법조사처 방문

- 11
- 말레이시아 한류타운 사절단 출정(11일~13일)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의

- 12
- [컨소시엄] 가맹점 위생 안전관리
- 부산 프랜차이즈 정책토론회
- 가맹사업법 관련 의원실 미팅

- 13
- 제25기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과정 수료식

- 15
- 산악회 6월 정기모임(백운산)
- 제38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전문가 과정 입학식

- 18
- 부산지회 프랜차이즈 강의

- 21
- 음식점 협의체 회의

- 24
- [협회장] 2019 신남방 비즈니스 워크(24일~25일)

- 25
- 2019 국제식품 컨퍼런스(25일~26일)

- 27
- 36차 사회봉사
- [컨소시엄] 슈퍼바이저 대상 CS과정

2019년 주요 일정

- | |
|---|
| 2019,7,3,
2019 임원연찬회의 |
| 2019,7,5, ~ 7,7,
2019 인도네시아 국제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비즈니스 전시회 |
| 2019,7,20,
산악회 7월 정기모임(죽령산) |
| 2019,8,8, ~ 8,10,
제46회 프랜차이즈 대구 |
| 2019,8,17,
산악회 8월 정기모임(남한산성) |
| 제38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수료식 |
| 2019,9,4,
소나회 9월 정기모임 |
| 2019,9,21,
산악회 9월 정기모임(수락산) |
| 2019,10,2,
소나회 10월 정기모임 |
| 2019,10,3, ~ 10,5,
제47회 프랜차이즈 서울 |
| 2019,10,4, ~ 10,7,
2019 대만 국제 프랜차이즈 전시회 |
| 2019,10,18, ~ 10,19,
산악회 10월 정기모임(지리산) |
| 2019,10,31, ~ 11,2,
제48회 프랜차이즈 부산 |
| 2019,11,6,
소나회 11월 정기모임 |
| 2019,11,16,
산악회 송년 산행(서울근교) |
| 2019,12,19,
제20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예정)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윤리강령



개정 2016. 06. 30

전 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는 윤리경영의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문화를 지향한다.

또한 프랜차이즈산업을 국가 성장에 기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가 함께 동반상생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이에 세부행동 지침을 마련하여 신뢰를 높이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회원사의 권익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I. 기본강령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회원사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나아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신뢰와 협동

회원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 도입 및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력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회원사는 관련 법규를 철저한 준수를 통하여 공정 경쟁질서 확립 및 자율적 경쟁거래를 수행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회원사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회원사는 기업 및 가맹점, 고객의 상생을 통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II. 행동지침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가. 회원사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나. 회원사는 물질, 인적 시스템을 구축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다. 회원사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 노력한다.

2. 신뢰와 협동

가. 회원사는 상호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존중한다.

나. 회원사는 어떠한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가맹점주가 되고자하는 고객을 기만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준수한다.

다. 회원사는 다른 기업의 상표, 상호, 회사명, 표어 또는 기업을 식별하는 기타 표지를 모방하지 않는다.

라.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가맹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사전공시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분히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가. 회원사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도모한다.

나. 회원사는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상도익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한다.

다. 회원사는 비방광고 및 과장광고를 지양한다.

라. 회원사는 프랜차이즈 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기입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가. 회원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가격 및 상품의 동질성을 앞세워 지역 간 소비자 후생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 후생 증대에 기여한다.

나. 회원사는 국민들의 건전한 감시를 경허히 수용하며, 사회적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다. 회원사는 사회복지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기부, 모금, 자원, 나눔행사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가. 회원사는 산업 구성원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된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실현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

나. 회원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협조한다.

다. 회원사는 가맹점주의 영업 운영능력을 개선 · 향상시키도록 권장하고 그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라. 회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합리적인 의견소통을 이끌고 불평, 고충 및 논쟁의 해결에 있어서 신뢰와 선의에 입각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III. 윤리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가. 본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회원사 및 고객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내에 ‘윤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운영한다.

나. 윤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다. 회원사의 윤리강령 관련한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윤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Walking Towards a Brighter Future Together

홀로 걷는 '나'보다 함께 뛰는 '우리'가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미래로 도약합니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가입혜택

- 1 글로벌 프랜차이즈 진출 지원
- 2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 3 프랜차이즈 최고위 과정 "KFCEO 과정" 수강혜택
- 4 홈페이지 및 잡지 / 신문 등 미디어 홍보
- 5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권익 대변
- 6 프랜차이즈 산업 박람회 참가비 10% 할인
- 7 학사 및 석사, 장학금 등의 학위 과정 혜택
- 8 포럼/세미나/컨벤션 행사 참가 기회 제공
- 9 프랜차이즈 실무교육 정보제공 및 수강료 할인
- 10 법률/세무 자문/정책정보 제공 및 컨설팅
- 11 협회 교육장 임대 20% 할인
- 12 각종 규제 개선 건의 및 대정부 정책 건의
- 13 B2B 서비스혜택
- 14 프랜차이즈 산업인들과의 정기적 교류 기회 제공
- 15 가맹점주를 위한 은행 대출서비스 혜택

● 회원가입문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기업지원팀(직통)

070. 7919 4145

* 회원사 혜택 및 자세한 가입 절차는 협회 홈페이지(www.ikfa.or.kr)를 참조



교육장 세미나실 대관

최적의 교육/세미나 장소

협회 내에서도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교육, 세미나에 있어서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최적의 접근성

서초역 1번 출구 2분거리에
위치하여 가장 접근성이 좋은교육장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비즈니스 세미나, 간담회, 설명회 등의 공간을 대여하길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 직원 교육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을 찾으시는 인사 총무 담당자
- 프로그램 설명, 입시 설명회, 면접 설명회 등 적당한 장소를 찾으시는 교육/채용업 관계자

교육장 안내

- 희망실: 70~90명 / 창조실: 30~40명
- 빔프로젝트, 게시판, 유무선 마이크, 이동식 화이트 보드 (장비대여 가능)
- 휴게실, 무선인터넷 사용 가능, 예약 대관 (2주전), 기본 2시간 신청 (**협회 회원사 할인혜택**)
- 지하철(2호선 서초역), 버스 541,740, 서초21, 3200, 9100, 9300 (주차 불가, 서초역 주변 공영 주차장 활용)

문의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교육사업팀 (070-7919-4155)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orea Franchise Association

신뢰의 가치로 성장을 함께 나눕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월헌빌딩 2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혜택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산업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FC(세계프랜차이즈이사회) 정회원 · 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연맹) 정회원사입니다.

혜택1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큰 힘이 되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권익 대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가입된 모든 회원사는 가맹사업진흥법과 가맹사업법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2 사업 성공의 요람!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박람회 부스비 10% 환급〉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박람회 개최! 부스 참가 시 행사 후 부스비 10%의 환급 혜택을 드립니다.
혜택3 해외진출을 꿈꾸는 회원사에게! 〈해외진출 사업지원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글로벌한 영업 확장을 위해 해외 진출 사업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혜택4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향한 〈프랜차이즈 정부무료교육 외〉 프랜차이즈 국가인적자원 무료교육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법안 수시 교육, 프랜차이즈최고전문가, 프랜차이즈 5,0 리더, 프랜차이즈사업 전략전문가 슈퍼바이저 전문가 등 각종 협회 교육 수강료를 할인해드립니다.
혜택5 가맹계약서, 분쟁 조정 사항 등 〈각종 정책 정보 제공〉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또는 법률·세무 자문과 정책 정보가 필요한 회원사에게 프 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협회 자문위원을 소개해 드 립니다.	혜택6 최고경영자(CEO)대상 〈윤리준수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최고경영자(CEO)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물론 글로벌시대에 맞는 윤리경영의식을 함양시켜 드립니다.
혜택7 학사 및 석사 〈학위 과정 장학금 혜택〉 경희사이버대학교 전학과, 서울디지털대학교 전학과, 세종사이버대학교 전학과,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물류유통,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프랜차이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 경영, 등 기타 최고위 과정의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8 CEO포럼, 법률 세미나 등 〈포럼·세미나 행사 참가〉 정기 프랜차이즈 전망세미나,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성공창업전략 세미나,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세미나 등 다양하고 알찬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혜택9 새로운 홍보 플랫폼 〈홈페이지·잡지·신문·미디어 홍보〉 프랜차이즈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전파! 각종 회원사 홍보, 인터뷰 및 행사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와 공유 할 수 있습니다.	혜택10 300명 수용 가능한 〈협회 교육장 임대 할인 혜택〉 사업설명회, 교육 및 홍보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협회 교육장을 20% 할인된 가격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기준)
혜택11 각종 규제 개선 건의 〈대정부 정책 건의〉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진흥법 등 법안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혜택12 회원사 대상 복지 서비스 〈회원사 전용 렌탈물〉 가맹점 창업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회원사 복지 강화를 위한 회원사전용 렌탈물 이용과 프랜차이즈협회의 지정 업체 꽃배달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13 프랜차이즈 산업인들과의 정기적 교류 〈다양한 친목 프로그램 참가〉 협회 내 분과위원회 활동, 신입회원사간담회 워크숍, 봉사활동,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송년회,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혜택14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를 위한 〈종합검진 할인 혜택〉 협회 회원사 건강지킴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특별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15 최고 권위의 프랜차이즈 업계·정책 전문지 〈월간 프랜차이즈 월드〉무료구독 프랜차이즈산업인들의 현장 및 활동상을 탐사 기획하고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에 대응하며, 유기적인 소통의 창으로 회원사를 널리 알리고 있는 공식 협회지 월간 프랜차이즈 월드 잡지 무료 구독 특별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16 문자 메시지, SNS 등을 통한 〈업계 최신 뉴스·소식 안내〉 회원사 전용 네이버 밴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일 중요한 업계 뉴스를 선별한 뉴스클리핑 서비스와 신속·정확한 주요 정책 소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신청서

신 청 인 정 보

회 사 명

사 진
(3cmX4cm)

회 사 주 소

홈 페이지

담당 직원

계좌 정보

회사명

대표자명

월 납입액

회 사 명

브랜 드 명

대 표 자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

Tel :

☐ 개인 / ☐ 법인통장

회사명

대표자명

금 원 (₩)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대표자)

팩 스

이 메 일
(대표자)

업 종

가입 경로

출금 일자

계좌 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협 회 계 좌 번 호

☐ 정회원 ☐ 협력회원

☐ 홈페이지 ☐ 추천인()☐ 기타()

매월 ☐5일 / ☐14일 / ☐28일

국민은행 644837-04-001180
* 외환은행 630-008754-827
예금주: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CMS 출금이체 약관】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 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은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
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
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 제한 또는 약정
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6.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 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연회비는 매년 1월에 한하여 징수하며 1월 이외 중도 가입시에는 월회비로 납부합니다.
10.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 하는 날로부터 해지신청하는 시점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서】

위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원가입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하는 날로부터 해지 신청하는 시점까지 사
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모든 약관동의(☐동의 / ☐미동의)

[관련문의] Tel)070-7919-4145 [필수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정보공개서, 대표이력서
[협회연락처] Tel)3471-8135~8 Fax)3471-8139 mail)jinpark@ikfa.or.kr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월헌빌딩 2층) 우)06647

상기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201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회원가입 관련문의 : Tel. 02)3471-8135~8, 070-7919-4145(직통)

KFA 홈페이지 : <http://www.ikfa.or.kr>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서초동, 월헌빌딩 2F, B1)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orea Franchise Association



정기구독 안내

프랜차이즈월드는 150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인들의 현장 및 활동상을 탐사 기획하고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수립에 대응하며, 프랜차이즈산업인들 상호 간에 유기적인 소통의 장으로 회원사를 널리 알리는 협회 공식월간지입니다.

구독료 안내

값: 1권 10,000원 / (주)KFN애드콤/ 입금계좌 : 하나은행 389-910002-30504
전화 (02)556-7889, 팩스 (02)556-5281로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광고단가 안내

*연 5회 계약시 1회 서비스(VAT 별도)

구분	유형	금액	수량	크기 (가로×세로mm)
A	표 4(뒷표지)	600만원	1면	전면컬러 226×296 (300dpi 해상도의 ai, psd 파일)
B	표 2 / 표 2 대면	400만원	1면	
C	표 3 / 표 3 대면	300만원	1면	
D	목차 대면	250만원	1면	
E	내지	200만원	1면	

광고, 콘텐츠, 구독 제안

*광고료 부가세별도

프랜차이즈월드

- 광고 1P 기본 200만원(내지) : 연5회 계약시 1회 서비스
- 콘텐츠 2P + 광고 1p : 300만원
- 광고진행시 포털(네이버, 다음)에 월 1회 기사 게재

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 온라인 광고

- 배너 월 100만원(연 1,000만원)
- 청약브랜드 기사 게재 (보도자료 제공시)

창업도 온라인 광고

- 메인화면 월 200만원(연 2,000만원)
- 서브화면 월 50만원 (연 500만원)

창업도,

- 누적 조회수 : 250만명
- 월간 조회수 : 12만명
- 프랜차이즈 6,757 브랜드 순위 검색 사이트

창업도

귀사의 발전과 마케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광고대행사 **KFN애드콤** ☎02.556.7889